

# 교동읍성 이데올로기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성곽이념	2) 교동읍성의 이념
1. 인구-계급	1. 인구
2. 정착-배제	2. 농업
3. 잉여-수탈	3. 시장
4. 안보-지배	군대
5. 시장-군대	배급
6. 권력이념	약탈
	4. 이념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한다. 몸에 대한 한국말에는 많은 등이 있다. 눈등, 귓등, 콧등, 입등, 손등, 발등이 그것이다. 이들 등의 반대편을 눈깔, 귓구멍, 콧구멍, 손바닥, 발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했으므로 기존의 이름 대신 눈가슴, 귀가슴, 코가슴, 입가슴, 손가슴, 발가슴이라고 해보자. 눈가슴은 보이는 것을 끌어안는다. 귀가슴은 들리는 것을 끌어안는다. 입가슴은 음식을 끌어안고, 숨을 끌어안는다. 코가슴은 냄새를 끌어안는다. 손가슴은 사물을 끌어안는다. 발가슴은 대지를 끌어안는다. 뇌가슴은 표상과 개념을 끌어안는다. 사람은 가슴으로 세계를 안는 존재다. 사람은 세계를 안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인간화된 세계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만큼 인간화된 세계는 창조된다. 안기를 통해 가슴과 세계는 새로운 결을 생성한다. 그 결이 가슴에 의한 결이므로 가슴결이라 하자. 가슴결은 고착된 실체이다. 그러나 가슴결이 안기를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된다. 안기는 주체이다. 가슴은 실체이자 주체이다. 헤겔은 개념에 세 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데 규정, 작용, 방법이다. 가슴은 규정과 안기를 결합한 개념이다. 가슴규정은 전제된 가슴결이며 가슴안기와 결합하여 개념으로서의 가슴이 되는 셈이다. 가슴이 대상을 안음으로서 가슴결이 생성된다. 개념과 대상존재의 결합이 이념이므로 생성된 가슴결, 정립된 가슴결은 이념과 동의어이다.

가슴결은 자연가슴결로부터 권력가슴결까지 모든 이념을 포괄한다. 그러나 안기는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포섭하지 못하고 봉합할 수밖에 없다. 안을 때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봉합하는 것이 안기이다. 따라서 안기에 의해 생성된 결은 항상 틈의 봉합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념인 가슴결은 봉합했으나 봉합되지 않은 틈이 항상 존재한다. 그 틈으로 인해 다시 안기가 시작된다.

그 자체로서의 세계와 가슴결의 완벽한 일치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세계자체와 가슴결이 점점 정교하게 봉합되어 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된다.

이글은 읍성이념을 안기의 운동과 그로인해 생성되는 가슴결로 확인하고, 가슴결에 내재된 틈을 발견하고 봉합하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추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개한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깨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지’이다. 인간 뇌에서 인지는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본능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차적인 인식의 단계마다 소환되어 재구성된다. 맥다웰(Linda McDowell)은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한다.<sup>1)</sup> 장소의 구체화인 경관에서 이 같은 입장은 더 잘 증명된다. 경관이란 지배적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새겨 넣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경관을 형성한 집단의 생각이나 규범, 가치 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sup>2)</sup>

경관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물리적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관을 생산(produce)하고, 이를 통해 특정 의미를 전달하려는 저자(writer)가 있으며, 경관을 소비하는 독자(reader)가 존재한다.<sup>3)</sup> 즉, 독자가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해한다면 저자의 생각이나 이념을 경관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4)</sup> 교동읍성은 장소이자 경관이자, 경관을 이루는 요소이다. 인간의 팔 다리가 몸 전체와 분리되면 유기체가 아니듯이 경관의 요소도 경관 전체와 분리되면 그 유기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동읍성을 권력이념의 자기전개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성곽일반의 이념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2장에서 교동읍성의 특수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곽이념

### 1. 인구-계급

첫째, 고대 성곽도시의 기원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인구 규모이다. 인구의 집중없이 성곽도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인구가 집중되어야 성곽도시가 완성되는가 하는 기준은 없다. 예를 들어 고대성읍의 인구가 현재의 5만 명의 도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도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우르(Ur)의 인구는 5,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규모는 현재 일부 국가의 도시 인구기준인 200명(노르웨이), 1,000명(캐나다), 2,000명(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다.<sup>5)</sup>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에 따르면 도시란 “부분적으로라도 시골생활을 거느”림으로써 “아무리 작더라도 자신의 제국을 지배해야 하는 것”<sup>6)</sup>이라면서, 도시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배후지로서 촌락이 있어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도시의 기준으로서 인구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브로델은 중세 말 독일에서 도시로서 특권을 부여받은 곳들의 평균인구는 400여 명에 불과했다면서 “도시사의 연구는 이러한 하한치에 까지 확장해야 한다”<sup>7)</sup>고 강조한다. 르네상스를 이끈 피렌체의 인맥은 베키오 다리를 중심으로 몰려 있던 50명도 안 되는 인구였다. 숫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 성곽도시의 운명을 가른다. 브로델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의 수가 아닌 관계, 특히 생산을 중심으로 한 분업관계와 지

1) Linda McDowell, *Gender, Identity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4.

2) M. Rose, “Landscape and labyrinths,” *Geoforum* 33, p.458

3) 정은혜·손유찬, 『지리학자의 국토읽기』, (푸른길, 2018), p.57

4) 정은혜·손유찬, 『지리학자의 국토읽기』, (푸른길, 2018), p.57

5) 신정엽, 「도시기원 관점에서의 문명, 농업, 국가 기원의 이론적 고찰」, 『지리교육논집』Vol.60,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16)

6)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1: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 2001), p.699

7)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1: 일상생활의 구조』, (까치, 2001), p.701

배관계를 기준으로 성곽도시를 구분할 수 있다.

존 리더<sup>8)</sup>는 공동체내에 사회경제적 분화, 즉 계급분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 착안하여, 사제, 공무원, 장인, 상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도시이고, 주로 농부들이 거주하는 곳을 마을로 구분하였다. 즉 전문성을 가진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도시와 마을을 구분하는 정의로 삼았다.<sup>9)</sup> 고대 이집트는 수메르의 성읍도시와 전혀 다른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리더의 구분은 고대근동의 성읍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도시와 상업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가져오진 않는다. 생산력이 아닌 생산관계의 발전만이 근본적 변혁을 가져온다. 따라서 인구수는 인간관계 발전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인과가 전도될 시 인구물신주의가 발생한다. 인구는 성읍도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이념 속에 편입될 때만 유의미한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 정착-배제

성곽도시의 관점에서 인구는 정착인구이거나 이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성곽도시는 정착인구에 의한, 정착인구를 위한, 정착인구의 것이다. 현대 도시에서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이동성이 활발해지고 효율화되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종속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수렵채집 집단의 이동성은 성곽도시의 기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정착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인 발달(예, 뇌, 기관)이 두드러졌으며, 새로운 사고가 이루어졌다. 인간에게 정착공간은 물질발전(예,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공간의 벽은 외부 공적공간과 분리해주며, 주택내부 공간은 인간에게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자신 또는 가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효과를 제공하며, 또한 안락감, 편안함, 안정감을 제공한다. 정주공간의 독립과 구별은 역설적으로 이웃과 상호작용하는 사회공간을 형성해준다. 이렇게 정주공간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 높은 단계인 도시의 기원으로 이어진다.<sup>10)</sup> 한 곳에 정착하면서 잉여의 발생과 축적이 용이하게 되었다. 더불어 인간은 정주혁명을 통해 유무형의 문명과 다양한 발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주의 고도화된 방식이 도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1)</sup> 정주란 무의미한 공간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간을 상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누적시킨다.<sup>12)</sup>

정착은 공간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조건이었다. 성곽은 중심지가 되었고 성 밖은 주변이

8) John Reader, *Citis*, (Seoul: Giho, 2006)

9) 이석우·이주형,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p.6120

10) P. Wilson, *The Domestication of the Human Spec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신정엽, 「도시기원 관점에서의 문명, 농업, 국가 기원의 이론적 고찰」, 『지리교육논집』Vol.60,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16), p.6

11) P. Wilson, *The Domestication of the Human Spec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C. Renfrew, Symbol before concept: Material engagement and th early development of society, in Hodder, I., ed., *Archaeological Theory Today*, (London: Polity Press, 2001), pp.122-140 ; 신정엽, 「도시기원 관점에서의 문명, 농업, 국가 기원의 이론적 고찰」, 『지리교육논집』 Vol.60,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16)

12) C. Renfrew, Symbol before concept: Material engagement and th early development of society, in Hodder, I., ed., *Archaeological Theory Today*, (London: Polity Press, 2001), pp.122-140; 성춘택 역, 「기원과 혁명: 휴머니티 형성의 고고학」, 사회평론(Gamble, C., 2007, *Origins and Revolution: Human Identity in Earliest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신정엽, 「도시기원 관점에서의 문명, 농업, 국가 기원의 이론적 고찰」, 『지리교육논집』Vol.60,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16), p.5

되었다. 원래부터 중심과 주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에 의해 주변이 발생한 것이다. 정착혁명은 다른 한편 배제를 낳는 요인이 되었으며 배제를 통해서 정착은 강고해졌다. 5천년 전 수메르시대 우르의 성곽 안에는 약 35,000명이 정주했지만 성곽 밖에는 200,000명의 서민들이 입지해 있었다.<sup>13)</sup> 비생산계급인 사제, 관리, 장인, 상인으로 이루어진 성곽도시는 성 밖 마을을 우월한 문명의 격차를 이용하여 지배했다. 성곽 안에서 고도의 청동기·철기문명을 누리는데 성곽 밖에서는 석기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비생산계급의 발전은 오직 생산계급인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성 안과 밖은 중심과 주변, 지배와 피지배, 문명과 야만, 제국과 식민으로 구조화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구조는 다시 성 안의 공간을 재구조화 했다. 성곽내 궁성으로부터의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공간의 재분화가 이루어졌다. 중국 장안성의 경우, 관료에게는 황제의 거처인 대명궁과 가능한 근 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유리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변화로 치안이 악화되고 계층간 알력이 커짐에 따라 동일한 계층끼리 함께 모여 거주할 필요성도 느꼈다. 고관들의 저택이 밀집함에 따라 고관들 사이에 왕래가 잦아져 지역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삼대내<sup>14)</sup> 주변지역은 7세기 후반부터 황족과 고급관료를 비롯한 환관이 모여살고 지가가 치솟아 폐쇄적 공동체(gated community)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Blakely and Snyder<sup>15)</sup>가 정의한 것처럼 영역·가치·장소·운명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였다. 장안성은 전국의 통일을 상징하는 수도로서 성안에 180개의 구역을 주역의 체계에 따라 배치한 도시였다. 계급분화는 공간적 형태로 구체화되어 성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성안의 주거지역을 구분하며, 외부식민지에서 내부식민지로 균열을 내재화한 것이다. 무엇을 안는 순간 무엇을 등지듯이, 통합은 분열을, 정착은 배제를 수반했다.

### 3. 잉여-수탈

성곽도시의 기원 논의에서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잉여이다. 성곽내의 주류를 이루는 사제, 관료, 예술가들은 비생산 계급이고 이들 비생산계급은 농민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에 잉여 없이는 성을 지탱할 수 없다. 이러한 잉여의 창출은 농업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차등교역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 즉, 잉여는 농업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교역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단 차등교역은 성내와 인근에서 발생하기 어렵고 원거리교역의 특수상품에서 가능하다. 잉여의 창출만이 아니라 잉여의 관리, 분배, 통제 등을 위해 사회, 제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잉여는 성곽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잉여는 도시의 기원과 고대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sup>16)</sup>

잉여는 생산하는 자와 향유하는 자, 잉여를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의 구분, 즉 계급분화를 초래했다. 이는 성에 거주하는 자와 성 밖에 거주하는 자를 구분했다. 농업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를 교환하는 상업, 즉 시장은 성안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은 사농공상의 엄격한 차별을 둔 사회였지만 정착 한양성은 농업도시가 아닌 상업도시였고 전국의 농업잉여를 흡수하

13) Knox, P. and McCarthy, L., *Urbanization: An Introduction to Urban Geography*, 3rd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11); 신정엽·김감영, 「지리학 관점에서 도시기원 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Vol.9 No.2, (한국지리학회 2020), p.354

14) 장안성의 궁궐은 위치에 따라 태극궁이 西內, 대명궁이 東內 혹은 北內, 흥경궁이 南內라 하였고, 이들을 합쳐 삼대내三大內라 불렀다.

15) Blakely, E. J. and Snyder, M. G.,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p.33

16) 신정엽·김감영, 「지리학 관점에서 도시기원 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Vol.9 No.2, (한국지리학회 2020), pp.352-353

는 역할을 했다. 시장도 분화되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으로, 합법시장도 귀족들의 사치재를 다루는 고가시장과 서민시장으로 구분되었다. 중국 장안성의 동시와 서시가 대표적이다. 장안성 건설시에는 장소에 불과했던 구분이 대명궁이 성의 동쪽으로 이동하며 장소권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조선에서도 세종로의 옥의전과 종로의 시전이 구분되고 다시 성 밖의 난전으로 차별화 된 것과 일치한다. 잉여의 수탈과 독점이 곧 권력이었으며 그 권력 이념의 표현이 성의 구조로 고착화 된 것이다.

#### 4. 안보-지배

성의 가장 큰 목적은 안보이다. 잉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이 필요했고, 국방을 유지하려면 잉여가 필요했다. 잉여가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지만 잉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거둘 수 있는 것이 국방이었다. ‘부르주아’라는 명칭에서 상기하였듯이, 전쟁과 분쟁이 잦았던 중세 유럽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도시민들은 성곽 내에 거주하는 계층이었다. 앙리 피렌느(Henri Pirenne)는 중세 유럽도시의 형성에 대하여 고전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고대부터 존재해오던 도시들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시내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적 기능을 유지해왔는데, 상업의 부활에 따라서 이동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편력(遍歷)상인들이 등장하여 도시의 인접지역에 모여 정주하기 시작하였고, 도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들을 외부의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국 상인정주지까지 아우르는 성벽이 건설되면서 영역이 한층 확장된 중세도시가 형성되었다는 도식을 제시한 바 있다.<sup>17)</sup> 물론 이것은 중세 유럽도시의 기원을 설명하는 견해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업도시와 성곽의 지리적 입지 관계에 있어 외부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는 잘 지적한다. 시장의 풍요는 안전의 보장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성은 풍요롭고 통일된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하며 질서를 위협하는 균열은 안보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부를 향한 안보는 언제나 내부를 향한 지배와 쌍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성의 형태로서 고착된다.

이민족의 빈번한 침입과 도시 사이의 전쟁이 격렬했던 중세시대에, 방어설비로서의 축성은 도시성립과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예를 들면 끊임없는 전쟁으로 신의 전쟁터라 불리었던 폴란드의 성곽건축은 방어무기로서의 성곽의 진화사를 잘 보여준다.<sup>18)</sup>

근세 폴란드성 건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포에 대한 방어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화공 대포 무기가 발달함으로써 장거리 대포는 성벽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즉 대포의 쇠 포탄은 성벽의 아랫부분을 쉽게 무너뜨림으로서 적이 쉽게 성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축성 방식이 고안되었다. 높고 가는 성벽 대신, 낮고 두꺼운 성벽으로 바뀌었다. 또 성벽 네모서리나 가장 자리에는 능보가 설치되었다. 능보는 처음에는 원형으로 건설되었는데 성에 근접해 오는 적군을 감시하는데 약점이 발견되어, 5각형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각진 능보는 원형 능보에 비해 근접하는 적을 감시함에 있어 사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sup>19)</sup>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의 대포공격에 노출되는 성의 단

17) 앙리 피렌느, 강일휴 역, 『중세 유럽의 도시』, (신서원, 1997), pp.120-127; 김승정·박인권, 「조선 후기 읍성의 인구 구성과 상업 집적 특성」, 『도시연구』No.30, (도시사학회, 2022), pp.154-155

18) 김종석, 「외세침략과 관련한 폴란드 성(城) 건축양식변화 연구」, 『동유럽발칸학』Vol5, (아시아·중동부 유럽학회 2003), p38

19) 김종석, 「외세침략과 관련한 폴란드 성(城) 건축양식변화 연구」, 『동유럽발칸학』Vol.5, (아시아·중동부 유럽학회 2003), p.48

면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포트르 요새를 비롯, 유럽의 성들은 이러한 전형을 따랐다. 능보건설은 기존의 궁성을 확장하여 새로운곽성을 쌓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다시 이중·삼중의 성곽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전 궁성과 새로운 곽성 사이에 부르주아지의 주거지역이 형성된다. 부르주아지로부터 충분한 조세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비용인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 중요한 군사적 요새를 제외하면 비용 때문에 건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포공격에 대비하여 능보건설 대신에 성벽 내부에 다시 흙으로 된 내벽을 쌓는 방법 등이 고안되기도 하였다.<sup>20)</sup> 성읍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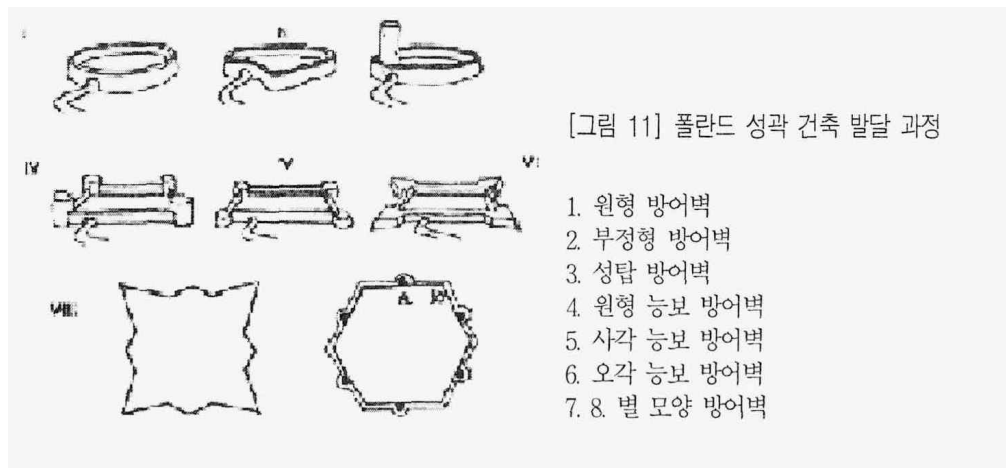


그림1. 폴란드 성곽의 발전과정

## 5. 시장-군대

마을시장에서의 등가교역은 잉여창출이 극히 제약된다. 원거리 교역시장에서의 부등가교역만이 대규모 잉여창출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원가를 알 수 없는 설탕과 향신료등을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때만 상업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고대와 중세의 성곽도시는 부등가교역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중심경제에 있어, 농업은 상업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시장이 가져온 가장 중대한 결과인 성곽도시의 탄생은 사실 역설적인 결과물이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낳은 자식인 성읍은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농촌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사회 전체의 지배적 경제조직들까지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영어단어 ‘contain’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가 아마도 시장을 둘러싸는 동시에 그것이 바깥쪽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 성곽도시의 이중적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일 것이다.<sup>21)</sup>

교역은 조직적으로 제도화된 도시들만이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도시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동네들과 교역하거나 원거리 무역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교역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그 어느 쪽도 마구잡이로 농촌지역으로 침투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sup>22)</sup>

마을장터란 본질적으로 동네 사람들의 장터였으니 비록 그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일부분이긴 했다. 하지만 마을의 지배적 경제체제를 시장에 맞추어 바꾸어버리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

20) 김종석, 「외세침략과 관련한 폴란드 성(城) 건축양식변화 연구」, 『동유럽발칸학』Vol.5, (아시아·중동 부유럽학회 2003), p.48

21)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19

22)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21

되지 않는다. 즉 마을장터는 국내 혹은 전국 시장이 생겨난 출발지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을 보자면 서유럽의 국내교역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국가의 개입이었다.<sup>23)</sup>

중세도시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가두어 놓았던 상업을 해방시키는 데에는 국가개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점과 경쟁이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상업의 두 위험에 대처하는 문제에서도 또다시 국가개입이 요청되었다. 당시 사람들도 경쟁은 결국 독점으로 귀결된다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더욱 두려움을 샀던 쪽은 경쟁보다는 독점이었다. 왜냐하면 독점행위는 종종 생활필수품을 불모로 삼아서 걸핏하면 공동체 전체에 재난을 가져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도시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행해져온 해결책은 각종 규제였는데 단지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국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러한 규제정책은 경쟁을 배제해버리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당시의 현실에서 따져보면 이는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보호수단이었다.<sup>24)</sup>

비록 전국시장이라는 이 새로운 제도는 분명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지만 중상주의 시절 시장의 지배적인 경향은 경쟁이 아니라 규제라는 전통적 특징이었다.<sup>25)</sup> 역사적으로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많은 국가재정이 지출되는 군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1550년경에서 1640년경 사이에 유럽열강이 동원한 군인 수는 두 배 늘었고 군인 한명을 전장에 보내는 비용은 평균 다섯 배 늘었다.<sup>26)</sup> 보호비용이 증가하자 피지배자들에 대한 재정압박이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17세기 수많은 반란을 촉발시켰다.<sup>27)</sup>

그러나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5세기의 많은 전쟁에 대해 아무도 죽지 않거나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적군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낙마함으로써 사망한 전투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8)</sup> 18세기 말엽 디포우(Daniel Defoe)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만 명씩의 양편 군대가 궁지에 몰려 서로를 뺨히 쳐다보면서 대결하고 있다가 요리조리 진영만 바꾸면서 좀 더 점잖게 말해서 서로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겨울 숙영지로 되돌아가버리는 일이 흔하다.”<sup>29)</sup> 용병도, 하층민도 강제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일반인들도 군대에 납치당하는 일은 없었고 이들 모두로 구성된 19세기 이전까지의 제한전쟁 시대에서 군대의 사병은 도덕과 이념에 고무되어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군대는 아니었다.

전쟁형성과 국가형성분야에서 임금노동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탈리아도시국가들은 적어도

23)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20

24)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26

25)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27

26) Geoffrey Parker and Lesley Smith, eds.,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p.14; Giovanni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1994)/백승욱 역, 『장기20세기』, (서울: 그린비, 2010), p.96

27) Niels Steensgaard,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in G. Parker and L. M. Smith eds., *The General Crisis of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pp.42-44; Giovanni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1994)/백승욱 역, 『장기20세기』, (서울: 그린비, 2010), p.96

28)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p.357

29) John U. Nef, "Limited Warfare and the Progress of European Civilization, 1640~1740," *The Review of Politics*, Vol.6 (July 1944), p.277 재인용;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p.358

부분적으로 그들의 보호비용을 수익으로 전환시켜냈고 전쟁자체를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냈다. 시민들이 세금을 거둬 용병을 쓰고 용병들이 급료를 소비하면 세금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이 시스템은 자기지속성을 띠게 되었다.<sup>30)</sup> 시장은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전쟁재정을 관리하는 체계로서 이용된 것이다.

이는 중세일본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1336년 무로마치막부가 교토에 설치되자 전국 각지의 쇼고 다이묘<sup>31)</sup>들은 다수의 가신과 군세를 교토에 주둔시켰다. 따라서 교토에 방대한 소비수요가 발생하여 각종 수공업 생산지가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기내 각지에 성립하였다. 교토에는 원래 토창土倉이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의 세력이 강하여 카마쿠라시대 말기에는 335개의 토창이 있었으며 이들은 무로마치시대에 들자 주류 판매업과 토창을 겸업하던 347개의 주옥酒屋과 함께 교토의 경제와 재정을 좌지우지했다. 막부는 1393년 주옥·토창에 대한 과세권을 산문과 조정으로부터 박탈하였다. 막부재정은 수입의 주요부분을 주옥·토창이 맡아 관리하고 출납사무도 공방어창公方御倉이라 불리는 토창이 담당하였으니 막부재정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국시대 동란기에는 막부·장원·토창이 동시에 몰락해갔다.<sup>32)</sup> 이는 무로마치막부시기 오닌의 난(1467-1477)중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무로마치막부 쇼군의 정실 히노 토미코(日野富子)는 교토에서 대치 중이던 동군과 서군 양 진영으로부터 돈놀이를 하며 전쟁자금을 시장으로 흐르게 하는 일을 하였다. 교토의 출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하였고, 쌀투기,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거액을 치부하며 파산한 막부와 조정을 금전적으로 지탱했다. 당시 기록인 『다이조인사사잡사기』에는 '천하의 화폐가 모두 토미코에게 몰려 있다'고 비난했다.<sup>33)</sup>

영국과 프랑스 모두 18세기의 마지막 10년이 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다-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없었고 경제생활을 시장의 자기조정메커니즘에 맡긴다는 생각은 그 시대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sup>34)</sup>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의 결과이다. 진짜배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인 조직방식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그리고 허구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 조직방식을 제한하는 과정이 서로 나란히 나타났던 것이다.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조정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했으니 이것이 19세기 역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징이다.<sup>35)</sup>

지금도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

30) William McNeil, *The Pursuit of Power: Technology, Armed Force, and Society since A.D. 10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74; Giovanni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1994)/백승욱 역, 『장기 20세기』, (서울: 그린비, 2010), p.90

31) 쇼고다이묘(守護大名)는 막부장군의 임명을 받고 막부와 일정한 상하 협력 및 대립관계 하에서 자신의 영국領國을 지배한 지방영주.

32) 박경수, 「전근대 일본의 상인·시장과 권력」,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01), p.37

33) 「히노 토미코」, 『나무위키』

34)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41

35)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p.248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sup>36)</sup>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타인·타국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요구되는 것은 군대이다. 허구의 자유시장이념 속에 구조화된 결정적 균열을 봉합하지 않으면 자유시장이념은 붕괴할 것이다. 상품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발전할수록 봉합해야할 균열은 더욱 크고 파국적이기에 역대 어떤 금융제국도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중국이 서구 금융자본투자를 받아들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사회주의와 반대되는가? 일치하는가? 등가교환에 기초한 상품경제와 달리 금융은 채권채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채권채무관계란 고대시기 채무노예처럼 적대적 사회관계로 표현된다. 즉 금융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불평등관계가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sup>37)</sup>은 금융자본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신용·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성격을 철폐하며 따라서 자기 안에 자본의 철폐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결합노동(사회주의)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신용제도가 강력한 지렛대로 역할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37)</sup>

자본주의경제를 최고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사회주의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금융을 통한 집적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본질적으로 적대관계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적 축적을 위한 금융의 긍정성과 적대관계의 심화라는 부정성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느냐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핵심관건인 것이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조정에 맡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국가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확산되었다. 자율조정시장의 신화를 단호히 부정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서의 수령제가 요구되었고 시진핑의 개헌이 단행되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사회주의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체제의 핵심내용으로 수렴해 왔다.

스탈린 당시 세계경제세계정치연구소를 이끌던 예브게니 바르가(E. Варга)는 자본주의불균등발전론을 제시했다.<sup>38)</sup>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국가라는 권력형식을 채택하는 한 불가피한 이론으로 보았다. 즉 사회주의국가불균등발전론이다. 불균등은 사회주의국가간 갈등과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초래한다. 소·미관계와 중·미관계의 차이는 양극간 적대전략이나 헤게모니 지배전략이나로 구별된다. 1979년 중·미수교이후 중국은 국제체계에 적응하며 헤게모니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1992년 덩소평은 남순강화에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적 요소가 있으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적 요소가 있다. 계획과 시장은 경제 수단일 뿐이다”<sup>39)</sup>라며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설파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한 통화전쟁 대신 IMF결제통화 바스킷에 참여하여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5축체계를 구성하며 공식적으로 3위의 결제통화로 등극시켰다.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자유주의시장경제와 다르더라도 사회주의경제가 자유주의시장경제

36) 장하준, 김희정 안세민 역,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pp.19-20

37) Karl Marx, *Capital* III, (Penguin Books Limited, 1981)외/김수행 역, 『자본론III』(下), (서울 : 비봉출판사, 2004, 제1개역판), p.747

38) 노경덕, 「세계경제대공황과 스탈린주의 경제학담론 1929~1936-바르가를 중심으로」, 『歷史教育』第115輯, 2010.9, p.249

39) 「중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속에 들어와 있고,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자유경쟁에 맡겨야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라면 사회주의경제를 차별·배제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이길 실력만이 문제될 뿐이다. 자유시장이념이 오히려 사회주의경제와의 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낡은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자유냐 계획이나 보다 군대를 요구했다.

## 6. 권력이념

권력은 시장에 세금을 요구하지만 군대에겐 목숨을 요구한다. 큰 균열을 봉합해야하는 이념은 더 큰 균열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군대를 용병으로서, 즉 돈으로서 운영하는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세계대전을 통해 입증되었다. 직업이 아닌 사명, 이익이 아닌 애국, 권리가 아닌 의무, 강제가 아닌 자율, 개인이 아닌 국민, 무기가 아닌 정신, 다양성이 아닌 통일성으로 무장된 이념을 만들지 못하면 군대도, 도시도, 국가도 실패한다. 공간권력이념으로서의 성곽도시의 국가적·국제적 균열선을 봉합할 과제 앞에서 성곽이념을 붕괴·몰락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역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고 실제 붕괴되었다.

성곽은 권력이념의 최고표현이었다. 즉 앞서 전개되어온 권력이념들은 성곽도시의 형태에 의해 구체화 된다. 서기전 3800~2004년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 수메르 성곽도시들은 왕궁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을 위한 사원이었으며, 왕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수메르 최초의 도시 에리두에 대해 아카드 제국의 필경사가 필사한 '수메르 왕명록'에는 "하늘로부터 왕권이 유래되어진 후"라고 기록되어 있다.<sup>40)</sup>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매년 도시의 통치자는 신과의 접촉을 증명하기위해 성흔례 행사로 일주일 이상 지구라트의 신방에서 여사제와 함께 지냈다.<sup>41)</sup> 따라서 도시의 중심은 언제나 신을 맞이하는 지구라트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왕의 궁전은 신전에 딸린 부속시설에 불과하였다.<sup>42)</sup>

그러나 최초의 제국인 사르곤의 아카드제국이 형성되면서 군사적 기능과 왕권이 강화되어 도시의 모습은 신전중심에서 왕궁중심의 도시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sup>43)</sup> 건축적 측면에서는 수메르의 도시들이 자연현상을 중요시하는 농업적 기반에 따라 지구라트와 신전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본 반면 셈족들은 상업적, 군사적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어 점차 지구라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궁중심의 도시를 이루게 된다. 지구라트가 중심이던 우르와, 왕궁이 중심이 되고 지구라트는 부속시설로 변한 코르사바드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sup>44)</sup>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사르곤은 신이 될 수 없었지만, 같은 시기 다른 문명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는 인간이면서 모든 신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었다. 결국 이집트의 모델처럼 왕이 곧 신으로 선포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권력은 신권에서 왕권으로 교체되었다.

중국고대국가인 하(夏)·상(商)나라의 경우, 좌묘우궁(左廟右宮)의 건축원칙에 따라 궁전과 의례시

40) Gwendolyn Leick, *Mesopotamia. The Invention of the City*, (London: Penguin Books, 2002)

41) Jo Chol Soo, *myth of Sumer*, (Seoul: Seohae Anthology, 2003)

42) 이석우·이주형,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p.6121

43) 이석우·이주형,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p.6126

44) 이석우·이주형, 「메소포타미아 고대도시의 변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p.6126

설인 종묘를 성 안에 함께 위치시켰고, 규모면에서도 궁전과 대등한 영역을 차지했다. 이것은 상나라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의례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은나라 사람들은 신을 존중하고 귀신(조상)을 섬김으로써 백성을 통치했다”고 언급한 『禮記』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처럼 이른 시기부터 지배계층은 제사를 통해서 자연신과 선대왕으로부터 권위를 선양받음으로써 백성을 통치하고자 했기 때문에 의례건축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신의 자리를 왕이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秦나라 함양성咸陽城에서 발생한다. 궁성이 위수 북쪽 구릉지대에 입지한 반면에 종묘와 사직<sup>45)</sup>은 위수 남쪽의 광성 밖에 위치했다. 궁성과 종묘·사직의 분리뿐만 아니라 궁성이 종묘·사직보다 규모와 영역면에서 훨씬 증가되었다.

수·당대 장안성의 도시계획에는 당시의 다양한 전통적 사상이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우주의 거울로 왕도를 건설한다는 천문사상의 우주론, 왕조의례의 무대로 왕도를 건설한다는 예사상, 고대중국 고래로 『주례』<sup>46)</sup>가 제시한 이상도시의 모델, 그리고 음양오행사상과 역경사상 등을 가리킨다. 장안성은 이들 전통적 사상을 격자형도시공간에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오랜 분열시대를 마감한 정통왕조의 수도로서 자격을 얻고자 하였다. 유교 문명권에서는 성곽의 배치까지 경전의 원리에 따라 세밀하게 지정할 정도로 성곽은 권력이념의 현실태였다.

도시의 경계는 국가의 국경이 되었고, 왕권은 국민주권이 되었으며, 성안의 공간차별은 국가안의 지역차별로 바뀌었고, 성내 도시계획은 국가 국토계획이 되었다. 권력이념형태로서의 성곽이념은 붕괴되었지만 권력이념의 본질은 여전히 자기전개중이다.

## 2) 교동읍성의 이념

강화성과 남한산성은 도성을 사이에 두고 기각지세의 형세를 이룬다. 교동읍성(喬桐邑城)과 문수산성(文殊山城)은 강화성을 사이에 두고 기각지세(掎角之勢)의 형세를 이룬다.<sup>47)</sup> 교동읍성체계는 한양도성-강화도성-교동읍성으로 이어지는 수직권력체계의 말단이다.

45) 진秦나라의 종묘와 사직의 설치목적은 『史記』에서 이사李斯가 말했던 대로 “황제의 현명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즉, ‘宗廟’제사를 통해서, 종법제도나 봉건적인 예를 확립하고, 황제의 권위와 지배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반면에 농사를 통해 풍요를 제공해주는 토지와 오곡의 신을 위한 ‘社’와 ‘稷’의 제사를 통해서 황제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대중에게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영재, 「중국 고대도시계획에서 宗廟사직의 배치와 그 의미, 상대에서 진대까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Vol.16 No.2,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p.10

46) 周禮는 유교경전의 하나로 중국 周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직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周禮總目에 의하면 본서의 체제는 천지춘하추동의 六像에 따라 6개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天官摠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冬官考工記」에 “匠人國方九里傍三門國中九九緯余九軌左祖右社面朝後市中央宮闕左右民廛”이라 기록되어 있다. 요약하면 도성의 한 측면에 3개문씩 모두 12개 성문을 설치하고 각 성문의 도로는 3조씩 개설하며 왕궁은 도성의 중심에 두고 궁성전면에 황성을 배치한다. 왕궁을 중심으로 시장은 북쪽에 종묘는 좌측에 사직은 우측에 설치하고 좌우측에 민가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윤정숙 역, 『중국도시계획의 이론 주례고공기의 도성제도』, (이회문화사, 1995); 劉廣定, 「再研『考工記』」, 『第七屆科學史研討會彙刊』, (臺北: 中央研究院委員會, 2007), pp.279-292.; 賀業鉅, 『考工記營國制度研究』,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7); 西森正晃, 「傳統的都市計劃から見た唐の長安城」, 『金澤大學學術情報リポソトリ』, 36, (2001), pp.8-11; 남영우·곽수정, 「고대도시 長安城의 입지적 의미와 도시구조」, 『한국도시지리학회지』Vol.14 No.1, (한국도시지리학회 2011), p.14

47) 안샘이나, 「조선시대 조정수호를 위한 성곽도시의 축성론과 도시구조: 강화성·남한산성·북한산성·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미술원 석사논문, 2012),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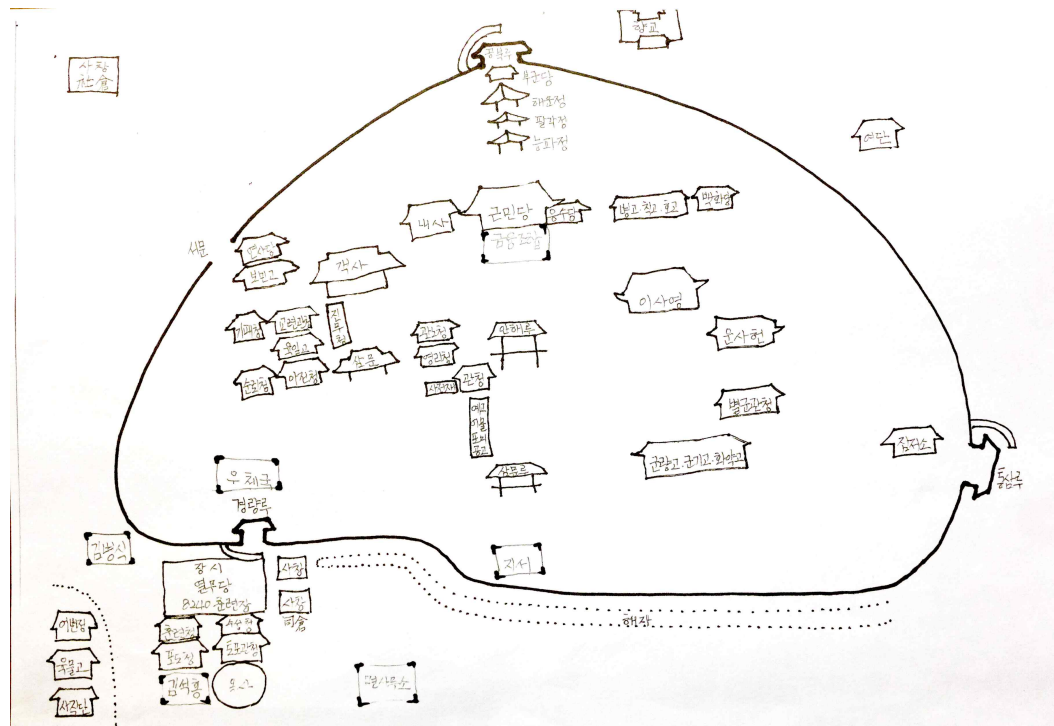


그림2 『교동군읍지』(1899)의 서술을 기초로 필자가 추정한 교동읍성도(「」는 한국전쟁기 건물)

원칙적으로 읍성 안에 배치되는 건물과 읍성 밖에 배치되는 건물은 우선 권력관계의 상수와 변수를 구성한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안에 있어야 하는데 밖에, 밖에 있어야 하는데 안에 배치된 건물은 그 지역 권력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권력이란 직관적인 공간관점으로만 살피면 거리와 경계에 비례한다.

원칙적으로 성안에 있어야 하는 건물은 객사, 아사, 창고이다.

첫째, 객사나 아사는 단독 건물이 아니라 여러 부속 건물들과 함께 일단의 건물군을 이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호칭을 구역으로 칭하여 '객사영역'과 '공해公廨영역'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객사에는 국왕을 상징하는 궐패關牌를 안치하여 매일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궁궐을 향해 배례하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이는 읍성이 왕에 대한 충성을 실행하는 공간임을 상징한다. 이는 객사가 공식적으로는 궁실(宮室)로 분류되는 데서도 증명된다. 성곽도시의 기원에서 신전이 궁전으로 대체되었듯이 유교의 성인을 배향하는 문묘는 종묘에 의해 밀려났고 종묘는 다시 왕궁에 의해 밀려났다. 그리고 권력의 수직체계는 읍성의 객사로 상징되게 되었다. 객사는 또한 공무를 위해 고을을 찾은 관리들의 숙소 및 접대 장소로 권력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건물의 명칭이 객사인 것은 권력을 향한 상징의식보다 실제 권력자 간의 관계유지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교동의 경우, 예외없이 객사가 읍성의 핵심에 있었다. 다른 읍성과 달리 교동읍성에는 또 하나의 궁실이 있었다. 철종이 왕이 되기 전 머물렀다는 잠저소가 그것이다. 이로서 교동읍성은 궁실을 두 개나 가진 읍성이 된 셈이다.

둘째, 공해영역은 행정관리들을 위한 부사와 군인들을 위한 군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 권력의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두 기능권력을 상징한다. 부사에서는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 지휘관계에 있는 향리와, 수평적 견제관계에 있는 향청의 품관들의 관계가 중요하다.<sup>48)</sup> 향청의 좌수<sup>49)</sup>를 임명함에 있어 수령의 권력에 휘둘리는가, 재지사족들의 수령견제가 작동하

는가가 공간적으로 표출되는 형태는 향청이 성안에 있는가, 성밖에 있는가의 여부이다. 향청은 원칙적으로 성안에 배치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밖에 위치할 때도 있다. 교동의 경우는 읍성배치원칙에 따라 향청이 성안에 배치되었다. 서문 안 연사당이란 이름으로 있었다. 그에 반해 치안행정인 토포청, 포도청은 놀랍게도 성 밖에 배치되었다. 심지어 옥사마저 성 밖에 있었다.<sup>50)</sup> 향청은 좌수가 1명, 별감이 3명으로 고작 4명뿐으로 행정권력으로는 아전향리들과 견줄 수 없다. 향청의 견제권력은 재지사족들의 구심인 향교에 토대할 때만 발휘되는데 읍성건립 후 100여년이 지나도 향교가 이전되지 않았기에 향청은 그 기반인 향교와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과 군사의 관계에서는 읍성의 목적이 행정기능중심인가 방어기능중심인가가 중요하다.<sup>51)</sup> 행정중심읍성인 경우 민가들이 성안에 위치하게 되고, 수령이 군대를 지휘하는 행정중심권력이 형성된다. 방어중심읍성인 경우 민가들이 성밖에 위치하게 되거나 군권이 행정권을 포섭하여 군정권력이 형성된다. 교동의 경우 읍성의 형성이 삼도수군통어영 설치에 의한 것이므로 읍성에는 민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방어중심읍성으로 건설된 강화읍성이 민가를 포함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동의 군 관련 시설들은 성안은 물론 성 밖까지 확장되어 있다. 특히 수군의 특성상 전함을 정박, 수리, 훈련하는 선창포구까지가 통어영성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어의 삼도수군통제영이 군영임에 비해 교동의 통어영은 군영과 교동부를 겸직했다.<sup>52)</sup> 교동 통어영은 군인이 280명을 차지하는데 비해 교동부 향리는 74명에 불과했고 실질적 향리인 아전은 22명에 불과했다.<sup>53)</sup> 따라서 교동읍성이라기보다 통어영성이라고 함이 더 적절하다.

셋째, 창고들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하부구조와 토대를 지탱하는 물질권력을 상징한다. 세곡미를 보관하는 읍창·사창·司倉과 무기고가 핵심이다. 창고에 집적된 쌀과 무기의 양은 곧 권력량을 표현한다. **사창에는 대동미가 2,000가마정도 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4)</sup> 창고의 운영

48) 재지 사족들이 수령의 지방 통치를 보좌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머물던 공간인 향청은 읍성 안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태안읍성처럼 읍성 밖에 위치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전종한, 「조선후기 읍성 취락의 경관요소와 경관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21권 제2호, (2015), p.327

49) 조선 초기에 지방자치기구엔 유향소에서 선출한 후 중앙정부(경재소)에서 임명했으므로 수령견제기능이 강했다. 선조이후 경재소가 혁파된 뒤에는 향회에서 선출된 자를 수령이 임명하였다. 따라서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의 지휘를 받는 향리아전들을 감시·규찰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수령이 자신의 향리들과 결탁하면 좌수가 수령을 견제하는 기능도 하게 되지만 수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므로 좌수·별감이 수령과 결탁할 수도 있었다.

50) 인천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교동군읍지(1899)』, (인천시, 2006), p.21

51) 죄인을 가두는 옥사와 같은 시설은 행정관료들의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읍성 안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상도 청도읍성이나 황해도 풍천읍성의 옥사는 읍성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의도야 어땠든 국가사법체제의 이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52) 송기중, 「17~18세기 통어영의 설치와 운영」, 『사림』No.82, (수선사학회 2022), p.342참조

53) 『여지도서』상, 강도부, 교동.

54) 벼 한 이삭은 약 120~180알, 한 포기는 약 2,400알(20개 이삭 기준)으로, 한 평에선 약 60,000알(25포기 기준)이 나오고 이는 500g정도이다. 밥 한공기는 약 3,000알(햇반은 4000알)이므로, 한 평에서 20공기가 생산되고 이는 1인 7일치 식량이다. 2평에서 1kg, 20평(66m<sup>2</sup>)에서 10kg, 160평에서 1가마(80kg)가 나온다. 조선시대 벼 한포기 생산량은 약 1/10로 예상되므로 1600평(5280m<sup>2</sup>)에서 1가마(80kg)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교동도 논면적 800만평(26km<sup>2</sup>)에서 50,000가마가 나오므로 조선시대는 현재면적 기준으로 해도 5,000가마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미는 1결(3,000평)당 12말(1가마=10말)이므로, 1,600평에서 1가마, 3,200평에서 2가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약 절반이상을 대동미로 납부한 셈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해보자. 1908년 통감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교동 쌀생산량은 11,465석으로 1,719,750kg(1석은 약150kg)이었다. 이는 21,496가마(1가마는 80kg)이다. 이는 현재 수확량의 1/2정도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교동 경작 논은 1708정보로 16,938,236m<sup>2</sup>(1정보=9917m<sup>2</sup>), 5,132,798평으로, 약 500만평이다. 이는 1710결이다. 1결 당 12말을

관리는 권력의 분배를 의미했고 창고에서 사실상의 권력이 나왔다. 교동의 경우에는 은전, 포부를 보관하는 병고兵庫, 칙고勅庫, 호고戶庫와 군량고·군기고는 성안에, 사창司倉은 성 밖에 두었다.<sup>55)</sup> 사창은 걷는 세금이고, 군량은 받는 녹봉이다. 병고·칙고·호고의 색리들은 은전과 벼로 돈을 놀이를 하거나 방납을 통해 부정축재할 수 있었다. 화약고는 수군에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선창이 있는 남산포 진망산에 두었다가 후에 성안 군기고로 합하였다. 화약고는 위기시에는 함선 근처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평화시기가 길어지면서 보안이 더 중요해져서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한편, 다른 읍성과 달리 통여영성이기에 선박정비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육물고六物庫와 돛대를 보관하는 장고櫓庫가 남산포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통어영 직속 19척의 함선 중 전선과 구선은 대형선박이었고 방패선과 병선은 중형선박이었으며 사후선, 협선, 거도선, 급수선, 복물선, 보경선은 소형선박이었다. 통어영전체 함선을 합하면 227척<sup>56)</sup>이었으므로 다종, 다량의 함선을 정비수리하려면 육물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 수군의 특성상 성안 못지않게 성밖, 특히 남산포구 인근 창고들도 중요했을 것이다. 교동의 통어영은 통영의 통제영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들 창고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은 동일했다.

넷째, 누각과 정자이다. 누각은 문루와, 성안에 별도로 세워지는 누각으로 구분된다. 문 자체가 성벽의 배제를 유일하게 붕괴시키는 특권의 공간이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연공간에서 권력공간으로, 야만공간에서 문명공간으로의 이동을 경험한다.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검문을 통해 선택된다. 선택받은 효과의 극대화하는 것이 문루이다. 문루는 읍성이 가진 권력과 문화의 위용과 권위, 화려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물이다.

성안의 누각은 텅 빈 공간을 권력공간으로 창출하는 장치이다. 교동읍성 안에는 삼문루와 안해루가 있었다. 삼문루를 거쳐 안해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객사와 동헌에 해당하는 근민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루가 수평공간에서의 미적체험을 안긴다면 삼문루와 안해루는 수직공간으로의 미적체험을 안긴다. 교동읍성에 부임한 통어사마다 안해루에 시를 남긴 것은 그 위상과 가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루는 어떤 행정적 군사적 기능과도 무관하기에 더더욱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런 건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정자이다. 정자는 읍성의 가장 높은 위치인 북문 안쪽에 해운정이, 그 아래에 능파정이 있었다. 이 위치에서는 성안의 핵심건물들과 읍성전체와 바다너머의 풍경까지 차경하며 완상을 즐길 수 있다. 주체를 중심으로 전체로서의 경관이 완성되는 공간인 것이다. 정자는 업무와 무관한 여가의 공간이다. 진정한 권력은 향유에서 오고 더더욱 잉여를 향유할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다. 누각과 마찬가지로 정자도 어떤 기능으로부터 예측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권력공간이다. 정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듯하지만 아무에게도 열려있지 않은 비어 있으며 은폐된 권력공간이다.

원칙적으로 읍성 밖에 배치되는 건물들은 여단·사직단, 향교, 장시이다.

첫째, 여단(厲壇)·성황단(城隍壇)은 한양성의 종묘에 해당한다.<sup>57)</sup> 주례 고공기의 원칙에 따라

내는 대동미는 총 20.531말로, 이는 약 2000가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동읍성 사창에는 2,000가마 정도의 대동미가 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 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6참조

55) 1760년경의 『여지도서』에는 사창과 대동고가 북문 안에 있다고 되어있다.

56) 『輿地圖書』와 『續大典』에 따르면, 충청, 전라, 경상도의 군선은 전선, 귀선, 병선, 사후선 등 크게 네 종류로 구성되었다. 이들 군선을 크기별로 분류해보면 대형 군선은 117척(21.3%), 중형 군선은 166척(30.2%), 소형군선 267척(48.5%) 등 550척이었다.; 송기중, 「17~18세기 통어영의 설치와 운영」, 『사람』No.82, (수선사학회 2022), p.340

57) 사직단은 좌묘우사의 원리에 따라 대개 읍성 밖의 서쪽에 위치했지만, 함경도 함흥읍성, 평안도 구

좌묘우사의 원칙이 읍성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야 했다. 고대성곽도시에서 왕은 하늘이나 조상의 대리인으로서 신전을 중시했지만 장안성의 사례에서 보듯 종묘가 성 밖으로 밀려났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읍성에서 종묘의 기능은 여단, 성황단 등으로 분산되었지만 사직단은 읍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수령이 여단과 사직단 중 어느 제사에 더 비중을 두는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수령들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있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사직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동의 경우는 고읍리에 있던 여단과 사직단을 200년이 지나서야 현 읍내리로 옮겨왔다. 초기 교동읍성에서 좌묘우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경시된 것이다.

둘째, 향교이다. 향교는 성안의 향청과 더불어 재지사족들의 구심으로 수령과 향리들을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령권력에 흡수되어 수직체계화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향교는 성 밖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sup>58)</sup> 공간으로만 보았을 때 향교가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재지사족의 수령견제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대로 원칙을 어겨가며 향교를 성안에 배치한 경우는 수령견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동읍성의 경우 100년여가 지난 1741년에야 향교가 이전되었다. 유교국가의 이념을 제공하는 향교의 중요성이 현실의 왕권보다 경시된 셈이었다. 또한 향교로 대표되는 재지사족들과의 심리적 거리도 물리적 거리에 비례했을 것이다. 이는 수령이 행정중심의 교동부사보다 방어중심의 통어사역할에 비중이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셋째로는 장시이다. 장시를 읍성이 품고 있는지, 성 밖에 배치되었는지, 또는 안팎에 내외시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정기시의 횡수이다. 5일장을 기준으로 더 많이 열리는지 더 적게 열리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마을 공동창고인 사창社倉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창社倉은 사창司倉의 세곡 외에도 마을 공동체의 잉여가 있음을 의미하게 때문이다. 교동은 읍성 밖 남문 앞에 5일장이 열렸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건물이 주목된다. 부군당이다. 부군당은 교동을 묘사한 어떤 지도나 지도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신권을 몰아낸 왕권의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온 신권의 공간, 사실로서 존재하나 법적·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는 읍성권력의 균열이자 그 작동의 이상적 증상이 아닐 수 없다.

1908년 성벽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910년 병탄과 함께 읍성철폐령을 시행하였다. 도로정비와 시가지 개조를 명분으로 읍성들을 노골적으로 파괴했다.<sup>59)</sup> 읍성이 파괴되었음에도 읍성중심의 공간권력은 여전히 작용했다. 교동읍성의 경우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공간권력의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간이념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이념들을 전개시켜보아야 한다.

성읍성 등지에서는 읍성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전종한, 「조선후기 읍성 취락의 경관요소와 경관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21권 제2호, (2015), p.326)

58) 향교가 읍성 밖이 아닌 읍성 안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황해도 황주읍성, 평안도의 구성읍성, 벽동읍성, 안주읍성, 영변읍성, 용천읍성, 정주읍성, 창성읍성, 함경도의 온성읍성, 함흥읍성 등이고 남부 지방임에도 읍성 안에 위치한 예외적인 사례는 전라도 만경읍성이다. 충청도 태안에서는 ‘향교에 호랑이의 침범이 심하여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향교를 몇 차례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태안읍지편찬위원회, 『태안읍지』, (1997), p.339). 이를 참조할 때, 향교를 읍성 안에 둔 사례가 주로 북부 지방에 분포하는 이유는 향교 입지의 원칙이 중·남부 지방과 달랐기 때문이기보다는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피해나 불안정했던 그곳의 치안상황이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59)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읍성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4), p.12

## 1. 인구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의하면 교동의 호수는 221호, 인구는 562명이다. 이중 군인이 450명이었다.<sup>60)</sup> 군인이 압도했다. 18세기 후반 교동의 호수는 1,739호에 인구는 7,211명이었다.<sup>61)</sup> 이중 군인이 776명이었다.<sup>62)</sup> 군인이 1/10에 해당한다.

비교적 신뢰할만한 인구통계서인 호구총수戶口總數(1789)가 완성될 무렵 교동에는 7,570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 335년 동안 약 13배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을 35세<sup>63)</sup>로 보면 약10세대에 걸쳐 1.3% 증가하였고 1세대 내에서는 0.1%로 출산율이 낮았다.

19세기 말에는 약 8,000명, 1910년 무렵에는 8,500-9,000명 전후한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부속도서였던 송가도의 1,600여명을 제외하면 교동도에는 7,000명 조금 넘는 주민이 있었던 셈이다.<sup>64)</sup>

1951년 8월 15일 당시 교동면의 경우는 원주민 수가 10,300명인데 피난민 수가 13,990명으로 원주민 수보다 많았는데 주로 연백군 피난민들이었다.<sup>65)</sup> 유엔민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동의 인구는 29,764명인데 이 중 교동원주민이 10,505명, 피난민이 19,2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교동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타이거여단 총 병력수는 1823명이다.<sup>67)</sup> 타이거여단 병력이 대부분 피난민들로 이루어졌다면 교동 피난민의 1/10, 교동 전체인구의 1/16에 해당한다.

1789년으로부터 1951년까지 162년 동안 2,730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1.3%증가율을 보였다. 평균수명을 35세로 보았을 때 4.6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의 출산율은 0.28%이다.

1951년도만 해도 교동인구는 강화지역 전체 인구의 17.3%<sup>68)</sup>에 달하여 강화 전체 지역에서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교동인구의 비율은 전체 강화지역의 5%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면적은 강화군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강화군 전체에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이전 인맥의 성격은 씨족적인 것이었다. 인사리와 양갑리의 창원黃씨, 난정리와 동산리의 온양方씨, 지석리와 고구리의 청주韓씨 등이 주축이 된 촌락은 400년, 봉소리의 전주李씨와

60) 『세종실록』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61) 『여지도서』 경기 교동부 民戶.

62) 구한말 을미년에 혁파될 때까지 통어영에는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를 필두로 방어사(1), 통어중군(1), 토중군(1), 교련관(6), 수군파총(2), 초관(6), 봉수별장(2), 감관(10), 기패관(25), 포도관(12), 별군관(50), 토포군관(25), 선무군관(24), 각고감관(6), 훈도(7), 영리(4), 아전(30), 통인(15), 순령수(15), 취고수(10), 사령(10), 사공(10), 착문장(7)등 전문군인과 사역인이 편성되어 있었다(『光武 3年 5月 喬桐郡邑誌地圖』).

63) 황상익, 「수명이야기1」, 『다산포럼』, (2013.5.21.); www.edasan.org

64) 읍지邑誌, 한국호구표韓國戶口表, 민족통계民籍統計,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統計年報를 참조.

65) 강화군의 원주민 복귀자 수가 102,225명이었는데, 피난민 수가 67,518명이나 되었다. 피난민들은 주로 개풍, 개성, 연백, 웅진군의 원주민들이었다. 서도면에 6,320명, 삼산면에 4,212명의 피난민이 분산 수용되었다. 사회부장관, 「강화도에 피난민수용소 설치에 관한 건」(1951.9.18.);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 p.758

66)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한국학』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25

67) 유격군 타이거여단 여단장 박상준, 「제8240유격군 타이거여단 U.N 편성표」, 『여단 전적 통계-제 계획 및 상황도표』, 전쟁기념관 기록문서

68) 김귀옥, 「한국전쟁과 강화도, 교통의 기록: 강화지역 한국전쟁 피해자 조사 실태보고서」, (한성대사회과학연구원 부설 전쟁과 평화연구소, 2007), p.10;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한국학』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76

안동쑤씨<sup>69)</sup>촌은 약280년, 삼선리의 안동權씨 촌은 약2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sup>70)</sup> 송가도<sup>71)</sup>의 청도 김씨는 15세기말에 입도하여 18세기 둔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72)</sup> 이들은 토성土姓인 高, 印, 田<sup>73)</sup>씨, 속성續成인 安씨를 대신해 지역사회의 주류인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부상하였다.<sup>74)</sup> 지방지배체제는 사족과 이족으로 분화되는데 조선초에는 토성인들이 지방향리를 세습하며 독점하고 있었다. 또한 읍의 조정결과로 형성된 속성인도 고려 후기 이래로 토성인만으로 향리의 채우기 어려워지자 향리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sup>75)</sup>

사족과 이족, 품관과 향리는 세습적·토호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상이성도 많다. 향리가 종적인 획일적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서열관계에서 수령권의 직접적 감독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품관은 횡적인 다원적 구조에서 관권의 간접적 통제하에 있었다. 품관은 지방의 양반유력자로서 지방자치조직인 유향소를 기반으로 수령을 보좌하는 지배층 역할을 했다. 조선에 와서 사족과 이족을 엄격히 구분하여 향리는 중인계층으로 수령의 명령을 받는 하급기능직으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향리가 행정권을 대개로 향촌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품관은 신분적 우월성을 담보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족과 이족이 서로 분화되어 양립하게 되자, 각자 독자적인 조직을 마련하여 나름대로의 지배체제확립에 부심하였다. 유향소는 부사(수령)의 독주를 감시하고 향리의 비리를 규찰하는 한편, 부사는 관권을 기반으로 향촌을 지배하므로 서로 견제관계였다. 이족은 일찍부터 부사라는 행정기구를 통하여 권력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향리의 명단인<sup>76)</sup> 단안壇案을 갖추어 놓고 호장등 상급 향리를 임명하였다.<sup>77)</sup> 반면, 사족은 이족의 읍사에 대비되는 유향소留鄉所를 차리고, 단안에 비교되는 사족명부인 향안鄉案을 각각 마련하고 있었다. 향안은 유향소와 달리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확고한 지배질서를 구축하고 나서야 비로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6세기 중반 이전에 향안이 작성된 군현은 소수였고, 임란 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다.<sup>78)</sup> 일반적으로 재지사족이 이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를 실현시켜

69) 안동전씨는 고려말 지배계층인 권문세족으로 활약하였으나 32세대 전사안全思安이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다는 충신불사이군을 내세우며 왕실 유배지인 교동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전거全租, 전순필全舜弼, 전광서全光瑞 등의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였고 향촌내 양반들의 명단인 향안鄉案에 이름을 다수 올리며 조선초 교동의 유력가문으로 정착하였다. 유정진 외, 『시간을 잇는 유산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유물전』, (강화역사박물관, 2024), p.15

70) 朝鮮總督府, 『朝鮮の姓』, (1934), p.173;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하, (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57)

71) 속종 무렵 지방관아와 민간에서는 교동의 부속도서인 松家島에서 활발한 간척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송가도는 원래 상주산 하나로 이루어진 외딴섬이었으나 개흙이 쌓이면서 남쪽의 석모도와 연결되었다. 넓게 펼쳐진 간척지는 지방관아에서 官桐, 민간에서 松桐을 축조하면서 松家坪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내 水營의 둔전으로 편입되었다.(『喬桐府誌(1894-95)』 島嶼; 『謄錄類抄』22 雜畧1, 肅宗元年(1675) 乙卯 5月 25日)

72) 유정진 외, 『시간을 잇는 유산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유물전』, (강화역사박물관, 2024), p.45

73) 『세종실록』148권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74) 송찬섭, 「17-8세기 신전 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12, (1985), pp.231-304;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2

75) 속성이라 해서 반드시 해당 군현의 향리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래 토성이 이동하여 속성이 된 것은 대개 향리였다(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1984), p.110 참조).

76) 최종탁, 「조선초 향촌지배세력의 역학구도」, 『국사관논총』제92집, p.243

77) 武田幸男,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研究」, 『朝鮮學報』25, (1962) p.52.;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 『嶺南大文理大學報』제2권 2호(통권3), (1974) pp.64~65; 北村秀人, 「高麗末李朝初期의 鄉吏」, 『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pp.68-70; 李樹健, 「高麗時代 「邑司」 研究」, 『國史館論叢』3, (1989), pp.78-101.

78) 李樹健, 『朝鮮時代地方行政史』, (1989), p.346.

가는 구체적 과정은 유향소의 조직, 향사당의 건립, 향안의 작성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sup>79)</sup> 1741년(영조17) 교동부사 조호신에 의해 고구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1730년) 작성된 향안에 따르면 196명의 양반 중 전씨 57, 방씨 51, 한씨 41, 황씨 35, 권씨 9, 신씨 1, 정씨 1, 김씨 1명으로 전, 방, 한, 황씨가 주류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교동향교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와 제향 및 강학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17세기부터 20세기 까지 향안을 작성하여 향촌의 여론을 주도하였고 그 후손들은 번성하여 유력 성씨로 존재하고 있다. 인구는 가족과 씨족의 형태로 권력이념의 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미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가권력기구의 인구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인구이다. 교동은 조선초부터 국가권력의 계획 하에 향촌이 구성되었으므로 군사관련 인구의 비율은 향촌 권력변화의 외적표현이다. 향촌내의 인구가 수평적 관계라면 군대라는 외부유입인구는 수직적 관계이다. 이는 인구수라는 양적 기준만으로는 통합할 수 없는 새로운 권력관계의 안기를 요청한다.

## 2. 농업

농업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사람들의 분업과 협업관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해 국가는 조세를 요구하므로 농업이란 국가권력관계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박헌채는 『민족경제론』에서 ‘쌀은 민족이다’라고 까지 선언했다. 농업생산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인구증가는 토지에 대한 개간압력으로 작용한다. 당연히 인구압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기 마련인데 연속적·상시적 경작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증대하는 질적 방안과 토지개간으로 경지의 절대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식량증산을 꾀하는 양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sup>80)</sup>

정도전은 경국대전외의 강령에 해당하는 정보위에서 오늘날 노동가치설이라고 할 황무지 개간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개간 장려를 위한 면세와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조선의 농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개간지에 대해서는 첫 해에 면세하고 이듬해에 규정액의 절반, 그 다음해에 전액을 수납한다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 농경지 개발은 의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sup>81)</sup>

갯골이 지나는 교동도 서부나 남부의 공격해안과 달리 뺨의 퇴적이 활발한 북쪽에서 간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는 현 고구리 구산동에서 놀락산을 거쳐 삼선리 비살곶을 잇는 선까지 전진했으며 새로 확보한 간척지는 오랫동안 ‘진동들’로 불리었다.

조선초 간척이 조직적으로 재개되면서 읍내리 매밭이와 양갑리 지식리와 무학리, 무학리와 난정리 구정곶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축조되었다. 그간 민간에서는 부채꼴 형태로 논배미를 계속 조성해 왔기 때문에 바다를 앞에 둔 이들 논필지의 경계만 보강한다면 장거리의 방조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었다. 간척지 중간에 들어선 부시미와 무서산 같은 구릉지가 징검다리역할을 해주어 작업은 한결 더 수월했다.<sup>82)</sup> 이들 방조제는 화개-울두-수정산을 연결하는 길이 되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세 도로가 모이는 대룡리가 이후 교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중심지는 자연조건의 단순변화만으로 이루지지

79) 鄭震英, 「壬亂前後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民族文化論叢』 8, (1987) p.106.

80)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1

81)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0

82)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39

않고 권력이념의 변화와 함께 온다.

조선초 조정에서는 왜구침략에 대비하여 교동에 수호군을 배치하였다. 교동으로는 바닷길에 밝아 수전에 능한 전라도인이 차출·파견 되었으며 식솔을 위해 구분전口分田 명목의 토지를 지급하였다.<sup>83)</sup> 그러나 구분전은 세종27년에 혁파되었기 때문에 군인가족의 생계와 병역을 모면하기 위해 간척지를 개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조11(1633년)에 삼도수군통어영이 들어와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수군의 식량조달 차원에서 경지를 넓혀갈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병력이 주둔하여 인력동원이 쉬워졌다. 개간사업이 활기를 띠며 재지기반을 마련하므로 군대의 권력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군사령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중심지는 화개산 남록으로 이전되었으며 향후의 간척사업 역시 구읍인 古邑里보다는 신읍인 邑內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84)</sup>

간척지의 양적 확대에 대한 전제조건이 방조제라면, 질적인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제염除鹽이다.<sup>85)</sup> 소금기를 빼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막대한 물이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제언이다. 제언은 관개를 목적으로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과 빗물을 저장하는 설비로 항간에서는 ‘방축(防築)’으로 통한다. 제언은 교동농업의 핵심 생산수단이였다. 문제는 이 제언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농민들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제언은 소유관계에 따라 관유제언官有堤堰과 민유제언民有堤堰으로 나뉜다. 민유제언은 다시 마을주민이 힘을 합해 축조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sup>86)</sup> 공유제언共有堤堰과 개인의 농토에 물을 대거나 물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유제언私有堤堰으로 구분된다.<sup>87)</sup> 교동북쪽의 영산제와 서쪽의 염주제는 교동부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관유제언으로 출발해 점차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제언(保民洞)으로 바뀌었다. 한편 제언소재지에 따라 마을의 농업생산력은 질적으로 차이가 났고 중심지와 주변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지세와 수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개산일대는 제언의 적지로 꼽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곳에 집중분포 했다.<sup>88)</sup> 그렇기에 본격적 간척이 성공하기 전까지 고읍리는 섬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본격화된 이양법과 수도작은 제염뿐 아니라 단위당 농업생산성을 질적으로 높이는 기술이었다.<sup>89)</sup> 수리관개의 개선은 탈염을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일제시대에 정리된 제염법에는 경지에 물을 들여 토양내의 염분을 용해시킨 후 배수하는 담수법湛水法을 비롯해 수경법水耕法, 명거법明渠法, 암거법暗渠法, 결빙법結氷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알팔파, 피, 목화, 유채 등 내염성 작물을 심어 토양으로부터 흡수한 염분을 분리·제거하는 방법도 활용되었다.<sup>90)</sup> 교동에서는 현지사정상 빗물로 염분을 용해시킨 후 바다로 배출하는 단순한 방법

83) 구분전은 고려시대 양반 및 군인 유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던 토지이다. 『世宗實錄』卷5. 元年 8月 11日 癸未: 『世宗實錄』卷109, 27年 7月 13日 乙酉

84)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1

85)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0

86)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2

87) 「水利に關する舊慣」, 『朝鮮總督府月報』3(4), (1913), pp.8-11

88)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3

89)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9참조

이 적용되었다. 빗물은 토양으로부터 염분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삼투작용에 의해 상승하는 염기를 억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sup>91)</sup>

종자개량은 농업생산성의 질적 발전에 결정적이었다. 개량품종이 도입되기 이전 교동에서는 녹두오리, 못먹배, 다다기, 보리벼등 재래종 벼가 널리 재배되었다. 재래종은 신품종과 달리 시비施肥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풍토에 적합한 벼였다. 녹두오리는 추석 무렵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설익은 풋벼를 베어내 솔에서 찌고 이를 햇볕에 건조시켰다가 시간에 맞추어 끼니에 충당하는 조생종 벼였다.<sup>92)</sup> 일제강점기 교동에서 자라고 있던 벼품종은 적신력赤神力이었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서 정치·군사적 우위를 점한 일제는 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권업모범장과 그 뒤를 이은 농사시험장이 주도하여 다수확품종을 개발하고 전국 각지에 설립된 일본지주들의 농장이 전위가 되어 개량품종의 보급을 주도하였다.<sup>93)</sup> 현지주민들에게 ‘홍조’로 더 잘 알려진 적신력 역시 무학리 야마자키농장(山崎農場)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sup>94)</sup>

성문 밖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성읍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잉여의 창출과 연관된다. 그러나 무학리의 야마자키농장은 높은 농업생산성을 보였지만 이는 읍성은커녕 교동의 잉여로 축적되지 않았다. 농장간척의 이유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있었으므로 식민지 수탈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향촌권력의 물적토대인 쌀이 향촌도 국가도 아닌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경제권력의 토대가 붕괴됨을 의미했다.

대규모간척사업에도 불구하고 교동의 농업생산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에도 섬 중앙부에 척박한 토양이라는 ‘토척(土瘠)’ 두 글자가 부각되어 있다.<sup>95)</sup> 교동의 농경지규모를 토지생산성에 준하는 전결수로 표시한 것은 1908년의 통감부통계가 마지막인데 교동부에는 척박한 토양으로 분류되는 5등전과 6등전이 주로 분포했다고 해석된다.<sup>96)</sup> 군인들은 농업잉여생산물의 소비계급이지만 교동에서는 고려대부터 이어진 둔전의 운영과 조

90) 수경법은 물이 고인 상태에서 경지를 갈아엎어 용해를 촉진시키고, 명거법은 깊이 30cm 정도의 도랑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염분이 용해된 물을 배수하며, 암거법은 지하에 관을 묻어 탈염과 배수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결빙법은 눈에 가둔 물이 동결할 때 염분상승이 억제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朝鮮の干拓事業』, (1929), p.25; 今和泉喜右衛門, 「干拓地の簡易暗渠除鹽溝實施と米の増産」, 『朝鮮農會報』14(6), (1940), pp.10-11; 森山貞平, 「干潟地の開拓に就て」, 『朝鮮農會報』17(12), (1922), p.29; 望月隆, 「干拓畚に於ける鹽化曹達の分布及びこれが水稻育成に及ぼす影響」, 『朝鮮農會報』11(4), (1937), p.13; 金谷要作, 「干潟地改良利用法の一考察」, 『朝鮮農會報』16(11), (1921), pp.22, 26-27)

91)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9

92)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5

93) 김도형, 「일본인 농장·농업회사의 농업기술 보급체계」, 『국사관논총』77, (1997), pp.167-212.

94) 적신력은 1914년 吉水專次郎이라는 일본인이 황해도 연백의 동척농장으로 이주할 때 고향인 후쿠오카현에서 종자를 가져와 이식하였다. 만생종으로 미질이 좋은 편이 아니고 이삭을 떨구기 어려운 단점은 있었지만 내염성이 뛰어나 해안저습지와 간척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적신력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안에서 교동으로 전래되었다. 제보 韓鼎鉉(72세 상릉리 638번지, 全興濟(67세 상릉리 650번지); 朝鮮農會, (1944); 佐佐木勝藏, 『朝鮮米の進展』, (鮮米協會, 1935);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51

95)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44

96) 『光武10年喬桐郡今災成冊』(奎16997)

선조의 장번군사들에 의해 농사를 짓는 생산계급이기도 했다. 장기평화상태는 이들의 정체성이 농민에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같은 이중업무가 교동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잉여의 창출을 보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농사의 수고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집적되는 곳은 읍성의 창고이다. 사창(司倉)<sup>97)</sup>은 주민들로부터 세곡을 받아 쌓아놓는 창고이고 군량고는 군량미를 비축하는 곳이었다. 사창은 남문 앞 열무당 곁에 있었고, 군량고는 성안 중군영 앞에 있었다. 세곡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이어서 보통 읍성 안에 둔다. 성 앞에 창고를 두는 경우는 주민들의 세곡납부의 편의 때문일 수 있다. 군량고를 성안에 둔 것으로 봐서 세곡보다 군량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사창미가 256섬, 군량미가 370섬이었던 것도 이를 증명한다.<sup>98)</sup> 창고지기 관리를 창색이라 한다. 사창색은 단순 보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게 경영을 해야 한다. 환곡등 식리사업을 주관하여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이기에 아전들이면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부사가 사창색을 임명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부정수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중간관리들의 부패는 백성을 원성을 초래하고 왕조에 대한 충성을 의심케 하고 민란으로 이어진다. 이들 사건은 외적요인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창에 세곡이 쌓이는 순간부터 창고에 내재되는 균열이 발전한 결과일 뿐이다. 창고로 세곡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창고운영에 의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창고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세곡이라는 국가권력이념의 실현태이기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농지면적을 넓히기 위한 험난한 간척과 모내기를 위한 물꼬싸움 등, 낮은 생산력과 맞서야하는 거친 갈등은 이를 넘어설 더 강력한 성곽권력의 통합을 요구했다.

### 3. 시장

교동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국방체계·조운체계와 더불어, 원거리 교역의 중계지였다. 벽란도에서 서북지역으로 떠날 때는 바람을 잘 타야 했다. 조선시대의 『증보문헌비고』에도 교동 마포(죽산포) 일대가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죽산포에서 바람 때를 기다리는 것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진 항해관습으로 보인다.<sup>99)</sup> 지금도 남산포에는 사신당, 사신관 등의 지명이 남아있는데, 이는 고려에 왔던 사신들이 떠나기 전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었다고 한다.<sup>100)</sup> 공민왕 12년 213척이나 되는 왜구 선박이 교동도에 정박하였다는 기록<sup>101)</sup>등을 고려하면 강화 서부 해안 역시 고려시대 국제बाट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가능하다. 왜구가 타고 온 배는 서공의 신주나 고려 조운선과 달리 3~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가볍고, 날랜 배였다.<sup>102)</sup>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조운선이나 첩저형인 왜구들의 배와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교동도에 남아있는 송나라 사신 관련 지명과 일화는 등주에서 건너 온 송의 사신선이 예성강으로 들어오던 시기의 사실이거나<sup>103)</sup> 고려와 명나라가 요동을 통해

97) 읍에는 읍창, 부에는 부창이 있고 이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는 읍창색, 부창색이라 하였다.

98) 관찬, 『교동부읍지』, (1871년경)

99) 『增補文獻備考』卷35, 輿地考23 關防11 海路1 西南海路.

100) 강화역사문화연구소, 『강화 고지명 총람』, (2007), pp.6-8. 읍내리 남산 일대의 사신당, 사신로, 사신관 등의 지명이 송나라 사신들과 연관된 지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101) 『高麗史』 卷40, 恭愍王 12年 4月 乙未.

102) 김재근, 『우리배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p.63.

103) 김영제, 『麗宋交易의 船路와 船泊』, 『歷史學報』204, (역사학회, 2009), pp.240-242; 정수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한·중 해상 교류 東北亞海路考-나·당해로와 여·송해로를 중심으로」, 『문명교류연구』,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11), pp.7-71

교류하던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04)</sup> 조선시대 특히 교동읍성이후까지 국제벚길의 유지되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교동은 고려·조선조에 걸쳐 장산곶에서 서울에 이르는 황해도 조운로의 거점이었다. 세곡을 실은 조운선은 물론 장삿배, 고깃배, 소금배 등이 폭주하는 두 왕조의 외부外府와도 같은 존재였다.<sup>105)</sup>

국가조세물류체계인 조운거점으로부터 전국시장이 자라났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후기 장시의 증설은 상품의 생산·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조운에 의한 유통체계의 발달이 낳은 결과였다.<sup>106)</sup> 상주인구와 유통상품이 많으며 육운과 선운이 편리한 읍, 군영, 포구와 나루, 조운창고촌에 거점장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들 장은 조선후기 장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중대형 시장이었다.<sup>107)</sup>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영암과 나주의 읍내장은 5일장을 넘어 3일장까지도 운영되었다.<sup>108)</sup> 심지어 거점시장에는 동래처럼 조시朝市라는 상설시장이 서는 곳도 있었다.<sup>109)</sup> 외국 상인들에 의해서도 수입품이 장시에 반입되고 있었다. 황해도 연해읍의 각 포구에는 당선唐船이 직접 출몰하여 수입품과 국산품을 상호 매매한다고 하였다.<sup>110)</sup>

이런 현상은 조선 초부터 정부가 지정한 육의전과 시전 외에서 개인들의 난전을 금지해온 정책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미 1470년부터 전라도지방에서 장시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을 숭상하고 상업을 배척하는 유교국가의 이념에 따라 그 존폐를 둘러싸고 성종(1470~1487)년간에 걸쳐 논의가 전개되었다. 성종7년 이전의 논의에서는 장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주류여서 금압책이 반복되었다. 그 주된 논리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의 소홀을 초래한다는 점이었고, 도적을 흥행시킨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중종조에는 장시의 폐단으로서 상인에 의한 농민의 수탈과 농가의 낭비도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농업을 권장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무농역상론(務農抑商論)이 장시의 금압을 낳은 주된 논리였다.

그러나 이항은 농민의 잉여와 비자급분의 교역은 반드시 장시에 의존하는데, 장시가 없으면 농가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장시가 농업재생산에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국가적 재분배의 보완책으로서 장시의 개설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장시를 허용하면 서도 장날을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시도가 명종원년과 선조40(1607)년에 있었는데,<sup>111)</sup> 이것은 상인의 교역편의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금압책이 여전히 장시를 규제하였음을 말해 준다.<sup>112)</sup> 이처럼 16세기 후반 이래에는 장시의 전면적 폐지론은 자취를 감추고, 신설에 대한 제약을 점점 완화하면서도 장시의 폐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난전금지가 난전허용으

104) 『高麗史』卷43, 世家 恭愍王 20年 11月; 『高麗史節要』, 辛禡 2年 庚申; 『高麗史』卷134, 列傳47 辛禡 7年 10月; 『高麗史』卷134, 列傳49 辛禡 13年 閏6月; 『高麗史』卷134, 列傳49 辛禡 13年 9月;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 元年 夏 4月 등. 여말선초 양국의 무역과 교통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鎭漢, 「高麗末對明貿易과 使行貿易」,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9,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 2009), pp.47-48 참조.

105) 『대동지지』는 ‘三道要衝兩京明限’라는 표현을 빌어 교동을 경기·충청·황해3도의 울타리이자 개성과 한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으로 묘사하고 있다. 최영준·홍금수, 「강화교동도의 해안저습지 개간과 수리사업」, 『대한지리학회지』Vol.38 No.4, (대한지리학회 2003), p.536

106)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04

107)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05

108) 『林園經濟志』, 倪圭志 4, 貨殖, 八域場市(5책, 민속원, p.542).

109) 『비변사등록』59, 숙종 34년 5월 15일(5책, p.795).

110)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p.242.

111) 『明宗實錄』원년2월 庚戌; 이헌창, 「朝鮮時代 國家의 再分配機能과 國內商業政策」, 『성곡논총』Vol.27 No.2,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p.478

112) 이헌창, 「朝鮮時代 國家의 再分配機能과 國內商業政策」, 『성곡논총』Vol.27 No.2,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p.478

로 바뀌어 간 것이다. 난전금지제도가 확립되어 18세기 전반까지 별 논란없이 유지된 것은 위정자들 입장에서 그 편익이 비용보다<sup>113)</sup> 컸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동향, 경제상황 등으로 보건대 18세기 중엽은 서울시전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정체되는 국면이 된다. 조선의 1630년대 30여개에 불과하던 종로의 시전이 18세기 말에는 무려 120개로 늘었기 때문이다.<sup>114)</sup> 이처럼 많은 시전이 설립되어 배타적 영업독점의 부작용이 커서 그 편익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강포구 등 서울로 물자가 반입하는 요충지와 도성 삼대사에서 개인상업이 성장한 결과 서울은 시전상인을 강력히 보호하지 않아도 국가수용물자의 조달에 별 애로가 없어졌다. 게다가 대동법의 시행으로 진상물자에 대한 후한 대가를 지급하여 시전의 부담이 준 것도 난전금지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런 가운데 난전금지권의 완화대책이 점차 강구되었던 것이다.

1600년 이항복의 건의는 난전금지제도와 시전동업조합체제의 확립을 낳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1741년 이보혁의 건의는 난전금지제도를 완화하고 도고都賈라는 매점매석대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sup>115)</sup>

1768년에는 시전상인의 도고행위로 인하여 일용필수품의 물가가 등귀한다고 판단하여 육의전을 제외하고 임의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발매發賣를 허용하였지만, 물가는 인하되지 않았고 이 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이에 더 강력한 발매정책이 실시된다. 1791년 체제공의 건의로 통공발매대책을 실시한 것이다. 통공은 시전상인의 특권을 회수한 결과였다. 금난에서 통공까지 약 200년의 시간이 경과한 셈이다. 1791년 신행통공이라 육의전을 제외한 통공발매정책이 뿌리를 내렸다. 체제공이 내세운 정책이념은 도고의 규제를 통한 물자수급의 원활화, 그에 따른 물가의 안정과 소민의 생활보호였다.<sup>116)</sup> 조선후기에는 1060여개의 장시가 벽촌에까지 개설되어 보통 30리 이내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었다. 통공실시로 금난전권이 혁파됨에 따라 시전도고는 다소 위축되었다. 그러나 개인독점인 사상도고私商都賈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통공은 사상도고의 활동이 시전도고의 활동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17)</sup>

지방관리들도 장시의 조성을 위해 개장과 분장을 주선하거나 관둔전을 장터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sup>118)</sup> 주변의 장과 겹치지 않도록 장날을 조정하였다. 장날조정이 상업규제책에서 상업지원책이 된 것이다. 거래행위를 주선하거나 장세를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감고監考나, 장내 순찰을 행하여 풍기문란이나 폭력사건 및 반란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담당하는 토포군관討捕軍官을 장시에 파견하였다.<sup>119)</sup> 조선후기에 장시를 감독하고 운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수

113) 이현창,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상업정책과 시전(市廛)」, 『經濟史學』Vol.40 No.1, (경제사학회, 2016), p.35

114)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 (지식산업사, 2013), p.136-140; 이현창,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상업정책과 시전(市廛)」, 『經濟史學』Vol.40 No.1, (경제사학회, 2016), p.35

115) 이현창,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상업정책과 시전(市廛)」, 『經濟史學』Vol.40 No.1, (경제사학회, 2016), p.33

116) 이현창, 「조선시대 서울에서의 상업정책과 시전(市廛)」, 『經濟史學』Vol.40 No.1, (경제사학회, 2016), p.33

117) 김동철,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考察」, 『釜大史學』4, (1980) p.167; 이육, 「18세기말 서울 商業界의 변화와 政府의 對策」, 『歷史學報』142, p.157; 변광석, 「18세기 市廛商人과 商權」, 『國史館論叢』59, (1994), p.260; 변광석, 「18세기 亂廛.都賈에 대한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1, (1996), p.271.

118) 황해도 황주의 邑內場市가 관둔전이었던 것처럼(『비변사등록』 81, 영조 3년 5월 8일, 8책, p.66), 읍내의 장터는 대부분 관둔전이었던 것 같다.

119) 監考와 討捕軍官의 명칭은 군현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감고는 향리층이, 토포군관은 군관층이 담당하였다. 감고의 장세 수봉과 그 작폐에 대해서는 『牧綱』(『조선민정자료총서』, (여강출판사),

령에게 주어져 있었다.<sup>120)</sup> 식리

지방관리들은 이를 통해 우선 합법적으로 시장세를 걷었다. 그러나 불법도 횡행했다. 세곡미나 환곡미를 하급관리들이 대신내주고 다음해 수확 후에 백성들에게 더 높은 대가를 받는 방납防納을 했다. 이처럼 수령이 쌀값의 지역별·시간별 차이를 이용하여 차등교역하거나 식리사업을 하거나<sup>121)</sup> 조곡창고에서 향리가 모리배와 공모하여 세미를 방납防納할 때에<sup>122)</sup> 장시는 이들 불법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였다. 통영의 외창外倉 지척에 장시가 있었다는 사실이<sup>123)</sup> 이를 잘 반증한다. 결국 지방관들의 장시에 대한 관심은 수세권과 운영권의 장악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4)</sup> 성읍도시를 구성하는 새로운 경제적 권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지방장사에서 전개된 도고상업의 뒤에는 반드시 현지상인들의 정보제공과 외부상인들의 자금살포, 그리고 권력층의 비호가 복합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상업이 가능하였고,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25)</sup>

이렇게 확보한 권력의 분배는 오직 수령의 재량에 있었다. 일부의 시장세는 관아의 수입으로 삼았고, 또 일부 장세는 鎭이나 驛 또는 향청, 향교 같은 향촌 권력기구에 분배되었던 것이다.<sup>126)</sup> 따라서 수령을 비판·감시하는 유향소·향청이나 향교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이들로의 재정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수령의 권력이었다.

## 군대

조선시대 시장과 도시의 발전에서 독특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 서울이다. 교동 역시 서울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기에 서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조선 개국 이후 16세기까지 200년 동안 서울은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수를 유지하며 조선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던 행정중심 도시였다. 그러나 임란 이후 17세기 서울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682년 호적상 인구수가 233,000명에 달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서울은 조선 최대 행정도시일 뿐만 아니라 군사 및 상업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이 변화의 이면엔 군대가 있었다. 임란 이후 군제개편은 국가방위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국왕과 조정 대신들은 많은 재정적 출혈을 감내하고서도 서울방위를 중요시한 5군영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군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군인의 증가는 인구증가로 이어졌다.<sup>127)</sup>

기존의 대동법이라는 조세제도의 개혁, 시장거래의 활성화 및 상업발전, 도시인구의 증가라는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논리는 서구의 도시 발전논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 제일의 상업기능을 가진 도시였지만, 유럽의 도시와 같이 상인계층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거나, 일본과 같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한양성의 시장은 왕조의 정치적·경제적 이념에 의해 제약되는 시장이었다. 왕조의 서울 시장에 대한 정책은 도시의 발전이

p.177) 참조. 그리고 토포군관의 시장 기찰과 그 작폐에 대해서는 『牧民心書』, 吏典, 馭衆 참조.

120)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11-312

121) 『牧民心書』, 戶典, 穀簿.

122) 『비변사등록』 181, 정조 17년 2월 20일 (18책, p.97).

123) 김현구, 「조선후기 지방관창의 운영사례」상, 『부대사학』14, (1990).

124)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13

125)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23

126) 김덕진, 「18-19세기 지방장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제81집, p.314

127)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pp.21-48; 박희진, 「군제개편이 17세기 서울의 인구와 상업발전에 미친 영향」, 『역사와 현실』(94), (한국역사연구회, 2014.12), pp.157-159

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작성된 광무호적에 나타난 호주들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전·현직 관리나 유학자들이 전체 서울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인이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군대가 해산된 이후이지만 전·현직 군인으로 기재된 인원이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관료비중이 1~2%에 불과한 서구의 도시들과는 다른 형태의 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28)</sup> 17세기 말 이후 서울은 행정도시에서 행정·군사도시로 다시 행정·군사·상업을 아우르는 복합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승호제(陞戶制)의 실시로 지방으로부터 매년 200여 호가 서울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인구증가를 초래했고, 부족한 급료로 인해 본인 또는 일가친척들이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서울의 상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sup>129)</sup> 남대문시장의 유래가 된 칠패시장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형성된 난전이었다.

교동은 고려 때부터 수도의 목젓과 같은 인후지였다. 따라서 외침을 가장 먼저 막아내야 했던 교동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군사에서 드러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교동인구 562명 중, 군정軍丁은 시위군이 6명, 선군船軍이 195명이며, 장번수군長番水軍이 249명이라고 하였다.<sup>130)</sup> 조선초기에는 장번수군이 전 인구의 절반이나 되었는데, 이는 교동의 인구증가에 고려말에 이주한 군사집단의 역할이 대단히 컸음을 알려준다.

영조대 기록인 『여지도서』에는 750명의 육군과 통어영에 배속된 1,661명의 수군가운데 경기도와 황해도 각 고을의 885명을 제외한 776명이 교동소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31)</sup>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평시에 농사일을 돌보다가 비상시 혹은 훈련기간에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이었지만 상비군의 비율도 높았다.

조선시대의 장번군사는 검사복이나 내금위와 같이 중앙의 특수한 병종에 일부만 존재하였다. 지방군으로서 장번군사가 주축이 되는 부대는 교동과 강화군이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이 같은 배치는 이미 고려말에 시작되었다. 교동에 장번군사를 대거 배치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는 이곳이 수도로 향하는 수로를 감제하는 군사적 요충이므로 정예부대를 주둔시켜야 했다. 둘째로는 교동이 작은 섬이어서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많은 병사를 주둔시키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군량과 물자도 내내 외부에서 조달해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예군사에게 토지를 주어 살게하면서 군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거의 유일한 사례로 그만큼 교동을 특별하게 중시했다는 증거가 된다.

통어영은 경기도·황해도·충청도 수군을 관할하므로 기능은 다르지만 교동부의 행정관할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sup>132)</sup> 또한 해상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고 밀무역을 감시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었다.<sup>133)</sup> 밀무역감시권은 사실상의 상업통제권이기에 이는 교동의 행정책

128) 박희진, 「군제개편이 17세기 서울의 인구와 상업발전에 미친 영향」, 『역사와 현실』(94), (한국역사연구회, 2014.12), pp.184-185

129)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pp.21-48; 박희진, 「군제개편이 17세기 서울의 인구와 상업발전에 미친 영향」, 『역사와 현실』(94), (한국역사연구회, 2014.12), pp.157-159

130) 『세종실록』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교동현.

131) 구한말 을미년에 혁파될 때까지 통어영에는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를 필두로 방어사(1), 통어중군(1), 토중군(1), 교련관(6), 수군파총(2), 초관(6), 봉수별장(2), 감관(10), 기패관(25), 포도관(12), 별군관(50), 토포군관(25), 선무군관(24), 각고감관(6), 훈도(7), 영리(4), 아전(30), 통인(15), 순령수(15), 취고수(10), 사령(10), 사공(10), 착문장(7)등 전문군인과 사역인이 편성되어 있었다(『光武 3年 5月 喬桐郡邑誌地圖』).

132) 구체적으로 통진의 덕포첨사와 남양의 화량첨사, 강화의 주문첨사와 장봉만호, 인천의 덕적첨사가 삼도통어사의 지휘 하에 있었다.

임자인 부사보다 기능상으로도 더 큰 권한을 가진 셈이었다. 교동부사가 정3품인데 비해 삼도 통어사는 종2품 이상이어서 품계가 교동 내에서는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sup>134)</sup>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 수군절도사, 삼도통어사, 부사가 겸임으로 동일 인물이었다.<sup>135)</sup>

교동의 재정 역시 군의 영향을 받았다. 강화부는 인조5년(1627)에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각종 군수의 확보를 위해 전세·대동·삼수미 등을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그대로 부내에 쌓아두고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하였다.<sup>136)</sup> 그러나 교동부는 저장분을 제외하고 한양(선혜청)으로 상납했다. 그래도 상납비율보다는 유치분의 비중이 많아서 다른 읍성보다는 혜택을 받았다.<sup>137)</sup> 군이 농업, 상업,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동읍성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처럼 시장과 군대가 분리되어 상호보완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고 군대는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견인력이었다.

1910년 교동읍성의 물리적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룡리로 시장이 이동하는 데는 40여년이 걸렸다. 이때도 역시 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읍내리였고, 1945년 8·15 해방 당시, 가장 요란스럽게 해방을 맞았던 동네도 읍내리였다.<sup>138)</sup> 방조제를 통해 화개산-울두산-수정산이 연결되며 길이 되고, 일제 시기 이미 개발되기 시작한 11번 지방도에 의해 대룡리는 교동 교통로의 결절점으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면소재지와 지서가 읍내리에서 대룡리로 바뀐 것은 조선시대 수군편중, 남부편중을 전복하는 엄청난 시도였다. 해방과 함께 신장된 주민권력은 전통의 성읍권력을 교체하는 행정권력의 장소이동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읍성은 내성으로 전략했고, 교동도의 해안선 전체가 외성이자 광성이 된 셈이다. 혹은 현대전에 의해 성이 방어체제로서 무의미해졌기에 해안선이 곧 성이자 광인 성곽일치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동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부터의 권력경관변화시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전쟁 시기까지도 교동의 중심은 여전히 읍내리였다.<sup>139)</sup>

교동해병특공대, 유엔8240부대, 타이거여단 이름은 다르지만 실체는 같았던 부대의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읍내리였다. 교동방어작전과 첩보작전은 물론, 군사훈련이 이루어진 읍성 남문앞 공터, 식량과 무기의 분배, 민간인학살까지 읍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40)</sup>

따라서 이 부대는 교동읍성의 권력이념이 변화를 살피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병참, 특히 식량보급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펴보자.

133) 『여지도서』, 교동 건치연혁; 이철성, 「조선후기 輿地圖書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田結稅와 漕運路 연구」, 『인천학연구』Vol.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p.256

134) 「통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5) 인천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교동군읍지(1899)』, (인천시, 2006), p.9

136) 『大典會通』권 호전 녹과. 계다가 충청도 태안의 전세까지 강화부로 들어왔다. (『大典會通』호전 조전)

137) 이철성, 「조선후기 輿地圖書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田結稅와 漕運路 연구」, 『인천학연구』Vol.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p.272

138)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한국학』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85

139)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한국학』Vol.31 No.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86

140) 다음 증언을 보자. “기독교신자 30여명이 사건을 이르셨습니다. 총 한자루로 내무서원을 잡아서 6명을 잡고 선생 한 명을 잡아서 302호 함대에 7명을 잡아 올렸는데, 그곳에서 정보를 빼고 모두 죽였지요.” 해군 302호 함정은 읍내리 남산포 앞 바다에 정박하고 특공대를 지원하던 함이었다.(연백군 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통강화군협의회, 2008), p194)

이 부대는 연백중심의 황해도 반공단체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상당수 반공 조직원들이 1950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고향 땅에 가족과 지인을 남겨둔 채 백령도, 초도, 석도 등 서해상에 위치한 도서(島嶼)로 피난한다. 이후 이들은 피난한 도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무장 조직을 구성하고, 바닷길을 활용해 은밀히 북한 본토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활동을 지속해갔다. 반공단체들은 전쟁기에 지하무장단체(인민군 점령시), 치안대(한국과 유엔군의 점령시), 유격대(중공군의 점령시)가 되었다.<sup>141)</sup> “미국의 지원으로 그들의 고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유격부대원들은 계속해서 싸웠다”는 한 미군 관계자의 회고처럼, 이들의 참전 동기는 지극히 순수하고 단순했으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였다.<sup>142)</sup> 반공단체는 무장활동을 했고 해군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 무기를 지원하고 함정을 활용케 했다. 교동에서는 해군 301, 302정들의 지원을 받았다.<sup>143)</sup> 그뿐 아니라 해군은 의용대 방식으로 현지 반공단체를 ‘해군 육전대’로 조직했다. 덕적도와 영흥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교동해군(병)특공대도 마찬가지이다.<sup>144)</sup>

해군에 의한 서해도서지구(영흥, 덕적, 영종, 강화, 용매, 백령, 초도, 속도, 평안도 서해섬들)의 장악력은 국군·유엔군의 복진시는 물론 1·4후퇴시도 유효했다. ‘해본작전명령 25호’<sup>145)</sup>가 내려졌는데(1951.1.5), 이것은 황해도 자위대(치안대)를 지원하고 피난민을 수송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자위대 지원과 그 가족들을 후송하는 것”이었다.<sup>146)</sup> 이렇게 무장치안대의 섬으로의 이동은 대부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완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장치안대는 해군의 유격대로 화했다. 1951년 초반 미군은 공산측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서 후방에 침투하여 교란작전을 펼 수 있는 반공 유격부대의 활용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sup>147)</sup>

이에 미8군은 사령부 내 특수작전 전문가인 맥기 중령(Lt. Col. John G. McGee)에게 백령도를 중심으로 서해도서에 흩어져있던 유격부대원들을 재조직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맥기 중령은 유격부대의 조직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행정관으로 버크 소령(Maj. William A. Burke)을 임명하고, 1월 말, 직접 백령도에 방문하여 유격부대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다.<sup>148)</sup> 미합동교리는 비정규군에 대해 “정규군이나 경찰, 국내치안대(security forces)에 속하지 않은 무장 개인 혹은 집단”<sup>149)</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법상 교전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책

141)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Vol.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p.171

142) 벤 S. 맬콤, 군사편찬연구소역 『백호부대유격전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p.119.;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213

143) KLO관련 문서에서는 ‘해군특공대’를 ‘해군육전대’로 표기했다.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KLO#464보고서」, 『KLO. TLO문서집』, (2000).

144)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Vol.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p.170

145) ‘해군의 황해도 피난민 구출작전과 구호활동’, 『한국전쟁사 5』, 182~183쪽. 해본작전명령 25호. 1. 귀 편대는 의용대청년군의 작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철수할 경우 전 함대를 동원 최근거리에서 있는 각 도서에 구출운송. 2.피난민은 해안지대에 집결. 3.탄약의 공급을 실시할 것인즉, 의용군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의 종류를 보고하라. 4.피난민은 백령도와 어청도로 수송하고 미곡은 덕적으로 운송.

146) 「해군함정 703호가 해군본부에 보낸 메시지 1951년 1월 16일」, 『한국전쟁사 유엔군소속유격대』, 176쪽;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Vol.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p.170

147) Frederick W.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Chevy Chas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6, p.1

148)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14

임지는 지휘관이 있어야 하고, 전쟁법 및 관습을 준수해야한다.<sup>150)</sup>

그러나 유격부대원들을 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할 고문관으로 파견된 미군은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반공 유격부대원들이 이중간첩일지 모른다는 불신으로 인해 미 고문관들이 이들 대원들의 작전에 동행하는 것을 꺼려했다. 자신들이 조직한 부대임에도 미군은 지휘통제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대원명부를 유지했으나,<sup>151)</sup> 미군은 한국정부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혹은 군사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고 개인기록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152)</sup> 실제 미측 보고서상에 미 고문관이 유격부대원의 본토 침투작전에 최초로 동행한 시점이 1952년 5월 1일로 적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951년 한 해 동안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은 미군의 면밀한 감시·통제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sup>153)</sup>

1952년 11월 11일에 작성된 “강화도 급 교동도에 국군파견 건의에 대한 처리전말에 관한 건”<sup>154)</sup>에 의하면, 강화출신 윤재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군 직속 유격대”와 “첩보기관 소속 부대원”들이 민간인을 약탈, 감금, 살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사단 정보처 요원인 안일채는 1951년 2월 28일 강화의 5816부대장으로 부임시 “강화도에는 좌익분자들을 소탕할 목적으로 이북 각 지역에서 온 피난 치안대들이 운집하였는데, 이들은 양민들의 재산탈취, 살해 등을 일삼으며……”<sup>155)</sup>라고 말하고 있다. 피난민들로서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더라도 이들 반공유격대들의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가졌었는지는 의심된다.

더 큰 문제는 정전협상이 시작되는 1951년 7월부터 동년 말 사이에 발생했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반공 유격부대 작전활동은 급속히 변질된다. 이 기간은 미군 측 지휘부로부터도 유격부대의 활동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았던 시기였다.<sup>156)</sup>

미군 지휘부가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미8군의 반공 유격부대

---

149) Joint Publication 3-24,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US Joint Chief of Staff, 2009, GL-7.

150)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다자조약, 제886호, 1986. 8. 8]

151) 현재 남아있는 대원명부는 휴전 후 국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52) ORO, Johns Hopkins University, 육본군사연구실역,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육군본부, 1988), pp.25,68; “Lt. Col(R). Paul W. Steinbeck'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17-18; Col(R).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편, SN 1962, p.419.

153) Frederick W.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Chevy Chas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6, p.156.

154) 이 문건의 내용은 “강화도 급 교상(동)도에 국군파견에 관한 건의 이송에 관한 건”에 기초해 있다. 1952년 2월 11일 국회 제20차 본회의는 국방부에게 유엔군 직속 부대대원의 횡포를 고발함과 동시에 정규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55) 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편』, (북한연구소, 1990), p.667;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Vol.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p.156

156) 해당발언은 반공유격부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제95.1기동전대장(Commander, Task Group 95.1) 스크트 몬크리에프 제독(Rear-Admiral A. Scott-Moncrieff)이 작전경과보고서에 유격부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14 to 24 October 1951” HMS Belfast, 25 October 1951, CTG 95.1's Comments, 16 November 1951.;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10

에 대한 관심 역시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이 임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선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급조되었던 반공 유격부대의 유용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공 유격부대는 1951년 중반 이후 미8군 사령부로부터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었다. 실제 1951년 하반기 동안 유격부대의 작전활동을 지시하는 미8군 사령부의 작전명령이 거의 하달되지 않았으며, 1951년 말까지 작전환경변화에 대비한 반공 유격부대의 새로운 작전방침조차 재검토되지 않았다.<sup>157)</sup>

반공 유격부대에 대한 미8군 사령부의 무관심은 일차적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레오파드 사령부의 통제력 약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8군 사령부로부터의 명령 및 지침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반공 유격부대의 작전활동이 더욱 “유격부대의 현장 고문관과 그들의 리더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33)</sup>

“조직원들에 대한 [사령부의] 감시는 매우 엉망이다(very haphazard). ... [조직원에 대한] 면밀한 통제도 없을뿐더러, 그들은 감시자로서의 훈련조차 받지 않았다.”<sup>158)</sup>

그리고 정전협상이 시작된 이후, 유격부대 내부에 이중첩자(double agent)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잠잠하던 반공 유격부대원들의 신뢰성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당시 초도에 주둔하던 300여명의 유격부대원들이 레오파드 사령부와 갈등 끝에 일방적으로 작전기지를 대화도로 옮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레오파드 사령부는 이를 일종의 ‘반란(mutiny)’으로 인지하고, 이들을 강제 무장해제하여 부산 포로수용소 등지로 송환하였다.<sup>159)</sup> 공교로운 점은 초도 내 핵심 방어병력이라 할 수 있는 유격부대원들이 섬을 이탈하자마자 공산군의 공세 기도가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당시 유엔해군 지휘부는 이를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보다는, “레오파드 게릴라에 의한 정보 유출의 결과”일 것이라 의심하였다.<sup>160)</sup> ‘사실상의 지휘관’으로서 미군은 유격대에 대한 지휘통제는커녕 배신과 불신 속에서 배제·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유격대들에 대해 국제법상 교전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의심되는 것이다.

## 배급

당시 미군은 유격부대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작전성과에 대한 제재 혹은 보상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군수품 보급에 대한 조절(issuing or withholding)”뿐이라고 생각했다.<sup>161)</sup> 보급을 조절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휘관들의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었

157) 해군작전을 위해 필요한 표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명령서만 간헐적으로 하달될 뿐이었다. Frederick Cleaver et al., op. cit., pp.32~33.

158) ADM 116/622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No. 43, 17 October to 12 November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Force./979F02FE/2960/11, 12 November 1951, p.5;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 군사연구소 2021), p.17

159) 대화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것. 구월산부대전우회, 『구월산부대 대원의 체험기』, (서울: 구월산부대전우회 2006), pp.92~93;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계룡: 육군본부 1994), pp.168-171.;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21

160) ADM 116/622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No. 39, 15 July to 15 August 1951”, p.19.

161) Frederick W. Cleaver et. al., “UN Partisan Warfare in Korea, 1951-1954” Chevy Chase,

다.<sup>162)</sup>

미군 측은 유격대에 보급품을 분배하면서 2가지 중요한 문제와 부딪혔다. 즉 유격대의 정확한 대원명부와 작전성과의 확인여부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대원명부관리도 안되었고 미군이 현장에서의 작전통제도 꺼렸기에 작전성과를 확인할 길도 없었다. 따라서 군수품 배급도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었다. 미군은 대체로 유격대원의 수보다 50%이상 보급품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한다.<sup>163)</sup> 전쟁 당시 보급을 맡았던 미군장교는 이를 매우 혼란스런 작전(a most frustrating operation)이라고 회고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보급인원은 물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sup>164)</sup>

유격대장들은 가능한 많은 보급을 원했지만, 기지사령부에서는 전과를 입증할 경우에만 보급을 했다. 전과가 있으면 보급품이 넉넉했지만, 전과가 없으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안남미만 보급했다. 각 부대별 전과를 비교하여 성적이 좋은 부대는 쌀을 추가로 지급하였다.<sup>165)</sup>

“보급품은 전투작전의 성과에 그 양이 비례하여 지급될 것”이라는 방침 때문에 “한명의 포로라도 더 잡아야해. 한 명 잡는데 안남미 열포대야, 우리의 보급을 위해서라도 더 잡아야 한다”<sup>166)</sup>는 말처럼 유격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과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유격부대원 대부분이 미8군의 보급 없이는 작전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의식주 가운데 식량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미군에게 쌀을 보급 받을 때까지는 식량조달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다.<sup>167)</sup> 섬으로 피난 나온 유격대원들은 생필품이 늘 부족하였고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친 얼굴에, 군복도 제대로 보급 받지 못해 절반은 군복을, 절반은 여기저기 덧대어 기운 사복차림이었다. 군복을 입은 대원은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사복을 입은 자는 그대로 길거리에 나 있으면 거지라고 할 만한 행색이었다. 식사는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주먹밥 2덩어리씩 배식되었다. 대원들은 배가 너무 고파 고생이 많았다고 기억했다.<sup>168)</sup>

---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6, p.2.

162) 『조남혁일기』, 1952.2.26;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163) “Lt. 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32.

164) Col. Muggelberg, “Notes-Partisan Units” Dec. 13, 1953, the Glenn E. Muggelberg Papers, MHI; “Lt.Col(R)., Michael A. Matzko'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19-23. 보급품의 관리 및 배분과정에서 지휘관의 유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보급이 거의 악몽수준(the logistic nightmare)이라고 회고했다. 무기, 탄약, 무전기, 텐트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보급품의 재고를 조사할 때면 재고량이 크게 부족했다. 지휘관이 일부 보급품을 내다팔거나 친지에게 주거나 혹은 도둑을 맞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165) “Records of Discussion” Nov. 2, SN 1400-1; Col(ret.). Donald A. Seibert, “The Regulars”, 1988, 군사편찬연구소, SN 1962, p.426; 이봉석·김병선·백경부 등 증언, 율령제8부대전우회, 2002.6.24.

166) 버크중령, 『지시서』1951.8.9.(박상준제공문서);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 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임수, 『제2차 개성시 탈환작전 비화』, 『송도』, (1992.9), p.104.

167) 최진헌·송종명(동키제4부대) 증언, 동키 제4부대전우회, 2003.7.21. 이 시기는 국군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했다. 군용수통 한 컵 정도의 양이 하루식량이었고, 반찬은 약간의 된장과 소금이 주된 것이었으며, 노란 무 한쪽도 받은 날이 드물었다고 한다. 1951년 5월 이후에 보급이 개선되어 식량이 넉넉해졌고, 장비도 보충되었다고 한다(강복구, 『철모와 들국화』, (행림출판, 1993), pp.63-64).

168) 복장 역시 철수당시 소지하였던 각양각색의 민간복장을 걸쳤고, 피난민이 밤새워 만든 짚신, 운동화등을 신었다. 신발은 고무신 또는 구두, 학생화등을 신었는데, 바닥이 떨어져서 노군줄이나 혹은 새끼줄로 동여매서 신어 ‘햇바지부대’라고 불렸다. 유격대원들에게 잘 맞지 않는 피복이나 군화가 지급

처음 피난 나왔을 당시 그들은 남의 집 된장·고추장을 훔쳐 먹다가, 나중에는 부역혐의를 받고 있는 집의 소·돼지를 잡아먹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sup>169)</sup> 특히 일부 유격부대원들의 경우 가족이나 도서 내 피난민들까지 함께 부양해야 했기에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군수지원은 필수적이었다.<sup>170)</sup>

기지사령부와 예하부대들 모두 식량을 작전통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쌀분배권을 활용하였다. 기지사령부는 보급품을 배와 항공기로 수송하였다. 후방기지사령부(KCOMZ)에서 보급품을 인천이나 동해안의 속초로 수송하면, 주로 해군 LST선이나 일부 공군수송기로 기지사령부에 보냈다. 기지사령부는 각 유격대근거지로 정크선을 통해서 쌀·담배·건어물 등 보급물품을 보냈다.<sup>171)</sup> 백령도기지사령부로는 C-45 수송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백령도 용기포의 천연비행장으로 물자를 수송하였다.<sup>172)</sup> 교동을 비롯한 서해도서의 특공대장들은 백령도까지 가서 전과를 보고하고 보급품을 실어왔다.

“레오파드 부대는 8천명 가량으로 서해에 분산되어 있다. 레오파드 사령부가 그들의 조직원들을 마주하는 때는 오직 각 조직의 대표가 백령도에 보급품을 수령하러 올 때뿐이다.”<sup>173)</sup>

쌀을 유격부대에 일괄 지급하면, 부대장들이 대원들에게 분배했다.<sup>174)</sup> 유격부대에서는 대원가족을 위해 가족미를 지급했다. 동키 제16부대장 전응세는 사령부에게 대원가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sup>175)</sup> 이 때문에 사령부에서 유격대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원조계획이 있었다면 대원의 도망이나 ‘약탈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했다.<sup>176)</sup> 이후 유격군사령부는 대원들 1인에게 식량 외에 야채, 생선, 고기 등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쌀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sup>177)</sup> 이 분배구조에서 상위에 속할수록 권력이 강해졌다.

---

되어, 대원마다 혈령한 미군군복을 입었다(이형우, 『빨치산들의 섬』, (새시대문화사, 1983), p.335; 해주유격부대전우회, 『해주유격부대전사』, (2003), pp.218-219;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85-S,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4).

16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3.3); 참고인 주○○ 진술조서(2008.10.13.);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 p.766

170) 당시 유격부대원들은 레오파드사령부로부터 1인당 하루에 9홉 가량의 쌀을 배급받았다. 벤 S. 맬콤, 군사편찬연구소역 『백호부대유격전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p.228.

171) “BG(R), Glenn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19.

172) 송효식 증언, 동키 제4부대 전우회, 2002.8.2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87

173) ADM 116/6228, “Korean War-Report of Proceedings No. 43, 17 October to 12 November 1951”, the Flag Officer, Second-in-command, Far East Station's Force./979FO2FE/2960/11, 12 November 1951, p.5;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17

174) 「모스맨 소령이 수집한 정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 ORO, Johns Hopkins University, 육본군사연구실역,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육군본부, 1988), pp.119-120.

175) 「설문」, 『당나귀2』, (백령도 표기지 유격대 ‘합동참의부’ 정훈부, 1952.12), p.81

176) 「미군 장병의 전투 체험 보고서」1954.3.21, ORO, Johns Hopkins University, 육본군사연구실역,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육군본부, 1988), p.296

177) “Col(R), Jay D. Vanderpool's Interview” Dec. 26, 1982,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pp.141-14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90

미 제8군은 1951년 1월말부터 6월 초까지 쌀 801톤을 유격대에 보급하였는데 이 보급량은 월평균 180톤 정도로 1951년 7월 당시 전투가능인원 7천명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월 25kg정도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1952년도에 주한국동군사령부연락처에서 유격대에 제공한 군수비용 중 쌀 및 기타식량을 위한 비용이 약820만 달러였다.

1952년의 군수비용 중 쌀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쌀은 유격부대의 경비지출수단으로 월간 1인당 45kg짜리 한 포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부대장은 쌀의 초과량으로 필요한 육류, 어류, 야채 등의 부식과 기타 생활필수품 획득을 위하여 주민들과 물물교환을 하였다. 유격대원에게 1일 800그램씩 혹은 9홉씩 지급된 쌀은 동양인에게 1일 소요된 600그램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여겼다. 5~6홉은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부식거리와 교환했다.<sup>178)</sup>

## 약탈

당시 유격부대원들에 대한 미군의 군수품 지원지침이 기본적으로 “완전한 보급지원은 불필요” 하며, “적으로부터 물자를 노획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기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은 대체로 불충분하였다.<sup>179)</sup> 이에 따라 미고문관들은 “훌륭한 게릴라부대는 적지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유격대의 보급창은 적진에 있다”면서 “적은 모든 유격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많은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다. 적으로부터 물자를 노획하여 사용하라”고<sup>180)</sup> 하였다. 사실 적에게 타격을 크게 줄수록 무기와 탄약, 식량 등이 충족되므로 작전이 있을 때는 무장대원뿐만 아니라 비무장대원이나 피난민들이 식량을 운반하기도 했다. 이를 유격전의 장점이라고 여기기도 했다.<sup>181)</sup> 따라서 필연적으로 유격부대원들의 작전 활동 중 일부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노획을 위해 할애될 수밖에 없었다.<sup>182)</sup> 올팩 제8부대 한 대원은 작전에서 쌀, 소금, 소 등을 노획해서 혹은 팔아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가족들을 부양했다.<sup>183)</sup> 다음의 증언을 들어보자.

“삶에 있어서 배고픔은 마지막이지요. 그 때마다 다시 뗏목타고 가서 쌀도 가지고 왔었지요. 타이거 유격대로 아들 둘은 주검을 당하였지요. 인민군 머리를 잘라오기도 하고 하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10대 어린소년들이 미군들을 따라다니며 종사하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인민군 총에 맞아 더러 죽기도 했지요.”<sup>184)</sup>

“먹을 것이 없던 때라 10대 청소년들도 스스로 유격대를 조직해 군인들을 도와 작전에 나서며 먹을 것을 해결하던 때다. 서른살 노총각이었던 나는 곧바로 특공대에 입대했다. 가족이 없었던 나는 8240을지부대에 소속하여 특공단 활동을 벌였다. 우리는 산이포와 개성쪽

178) 「다이소령과 면담」,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특별 주간 작전보고서 제19호, 1953.2.23-3.1」, 같은 문서.

179)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79.

180)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HQ, FEC LD(K), “Guerrilla Operations Outline, 1952”Apr.11, 1952, 군편, SN 1963.

181) 이형우, 『빨치산들의 섬』, (새시대문화사, 1983), p.20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81

182)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p.14-15

183) 이종암 일기, 1953.4.1; 조남혁 증언, 2003.9.29.

184)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통강화군협의회, 2008), p.115

을 넘나들며 공산당 소탕작전을 벌였다. 치안부대 활동도 벌였는데 때로는 패잔병들 70명과 치열하게 싸우다 죽을 뻔하여 도망쳐 나온 때도 있었다.”<sup>185)</sup>

“피난을 왔지만 식량 때문에 다시 월북하여 1.4후퇴 때에는 다시 홀로 남하하였습니다. 타 이거 군단이라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매일 강건너 들어갔다 밀려 나오면서 전시의 불안감이 반복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sup>186)</sup>

각 부대는 이에 따라 적만이 아니라 비협조적인 주민들로부터 곡식이나 소를 노획했다. 이 때문에 유격대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모 유격대간부는 국민들이 유격대가 “도적놈이 아닌 것을 알아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sup>187)</sup> 유격대의 폭력 앞에 봉소리 사람들은 소 등을 뇌물로 주어 생존한 경우가 있었으나, 타 동네의 경우는 모두 총살되었다고 하였다.<sup>188)</sup> 황소.식량.피복.선박 같은 노획품은 이를 획득한 유격대가 사용하되,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팔 수 있었다.<sup>189)</sup> 담배도 대원들에게 중요한 보급품이었다. 상륙작전이나 첩보 공작으로 육지에 가면 일부대원은 필사적으로 담배잎 말린 황초(黃草)를 한 보따리씩 걸머지고 들어왔다.<sup>190)</sup> 적 후방에 침투한 대원들에 대한 보급이 가장 어려워서 전리품을 보급에 충당하였다. 동키 제4부대의 경우, 마합도의 보급기지는 노획한 물품을 보관했던 곳이었다.<sup>191)</sup> 일부가 초기의 승고한 투쟁동기를 버리고, 사익을 목적으로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도를 중심으로 작전활동을 펼친 백호부대의 리더, 장석린의 사례였다. 장석린은 본래 레오파드 사령부로부터 가장 유능한 리더 중 한명으로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래의 회고록에서도 언급하듯, 그의 행동은 정전협상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말경 전임 백호부대장[장석린]은 휴전회담 때문에 결국 북한을 해방시키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부대의 주요 지휘직에 부대 창설대원을 제쳐두고 자기의 가족을 앉히기도 하였다. 백호부대장의…친척은 레오파드 기지로부터 수령하거나 인민군에게 노획한 보급품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다.”<sup>192)</sup>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물질적 이익에 심취(love of material and money)”하였던 백호부대장은 결국 그의 행실에 불만을 품은 부대원들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다.<sup>193)</sup> 하지만 이러한

185)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통강화군협의회, 2008), pp.164-165

186) 연백군실향민동우회, 『격강천리라더니』, (민주평통강화군협의회, 2008), p.189

187) 『당나귀2』, (백령도 표기지 유격대 ‘합동참의부’ 정훈부, 1952.12), p.77.

188) 참고인 전○○ 진술조서 (2008.3.6.);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 p.766

189) 「레오파드사령부가 동키부대에게 내린 지시」1952.3.15,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1. 이 과정에서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인삼, 아편 등으로 대북 교역을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모 부대전우회, 2002.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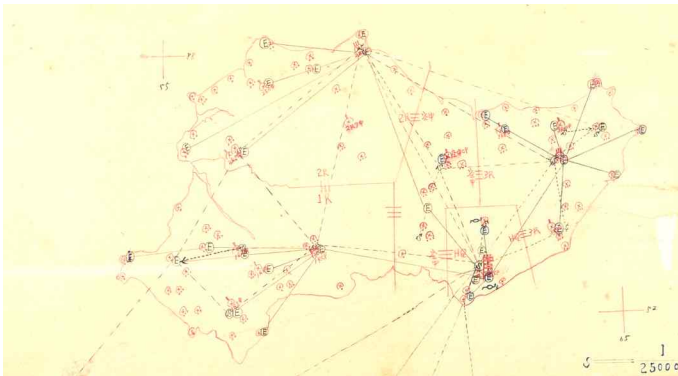
190) 『구월산 유격부대 전사』, p.8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91

191) 대위 도날드. A. 셰이버트, 표기지사령부, 「공적증명서」1952.11.6, 국방부, 「공적서철」, 군사편찬연구소사료304; 민종선 증언, 2003.8.16; Allan R. Millett, op.cit., p. 54; “The Narrative of the Leader of Donkey 4, Pak Choll”,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군사편찬연구소, SN 1400.

192) 벤 S. 맬콤, 군사편찬연구소역 『백호부대유격전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p.130.

193) U.S. Army Forces, Far East, 8086 Army Unit,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1951-1952”, Project MHD-3, Tokyo, 1954, p.61.

‘사익추구 활동’의 심화는 비단 백호 부대장 개인만의 일탈은 아니었다. 8월 말 이후 재개되기 시작한 반공 유격부대의 활동이 이전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조직원들의 물질적 이익과 직결된 작전에 집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말부터 서해 도서 곳곳에서 본토에 침투하기 위해 이동하는 유격부대의 선박이 점증하기 시작하였다.<sup>194)</sup> 그리고 이들의 작전활동을 유심히 관찰한 서해 유엔해군 지휘부는, 이것이 대부분 가을철 추수시기를 맞아 북한 본토에서 수확된 쌀을 탈취(rice raid)하기 위함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실제 “쌀과 소를 배에 싣고 복귀하는 유격부대원들의 모습”이 서해 전역에서 빈번하게 관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sup>195)</sup> 문제는 재개된 이들의 활동이 이전에 비해 과도하게 식량 탈취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 내 고리대금업자(money lender)나 폭력배 두목에 대한 개인적인 반목(feud)이나 손해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의 저항에 봉착할 시 빈번히

유엔해군에 긴급지원(emergency call)을 요청했다.<sup>196)</sup>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제95.1기동전대장은, 그의 예하 함장들에게 유격부대원들의 긴급지원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97)</sup>

조선시대 군인과 관료들은 수탈한 세곡미 방납이나 불법적 도고등을 통해 부정축재하기 위해 시장이란 장치를 이용했다. 이제 유격대원들 역시 잉여배급물이나 필요한 부식마련이나 전리품으로 노획한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읍내리에 전통 5일장이 유지되고 있었고 타이거여단 사령부가 위치해 있었기에 읍내리가 그런 시장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대령리로 시장이 이동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무엇일까? 면사무소와 지서가 이동했을 때도 반응조차 없었던 교동사람들이다. 피난민들에겐 농사지을 땅도, 교환할만한 잉여도 없었다. 유일하게 잉여가 발생했던 것은 미군보급품과 작전등을 통해 노획한 전리품들 이었을 것이다. 유엔 8240부대의 기반인 연대병력은 1연대(본부 양갑리)에 396명, 2연대(본부 인사리)에 409명, 3연대(본부 봉소리)에 422명, 공수중대(본부 고구리)에 128명이 있었고, 본부중대(읍내리)에는 고작 119명이 있었다.<sup>198)</sup>

194) ADM 116/6218, “HMS Kenya-Report of Proceedings 6 to 22 August 1951”, HMS Kenya, 29 August 1951, Haeju Area-Intelligence Note, para.4.

195) ADM 116/6214, “HMS Ceylon-Report of Proceedings from 5 to 17 October 1951” HMS Ceylon, 17 October 1951, para.25, Appendix II.

196) 김인승, 「정전협상의 시작과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변질-6·25전쟁기 반공 유격부대 활동의 성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No.15, (육군군사연구소 2021), p.25-26

197) ADM 116/6211, “HMS Belfast-Report of Proceedings 31 August to 11 September 1951” CTG 95.1’s Comments, 15 October 1951.참조

198) 타이거여단 총 병력수는 1823명이다. (유격군 타이거여단 여단장 박상준, 「제8240유격군타이거여단 U.N 편성표」, 『여단 전적 통계-제 계획 및 상황도표』, 전쟁기념관 기록문서)

그림3. 유엔8240타이거여단 병력배치도<sup>199)</sup>

군사지휘체계와 보급체계로서는 읍내리가 중심이지만 보급품을 교환, 판매, 소비하는 주체들은 교동 전도에 산개해 있었고 이들이 보급·노획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어야 했을 것이다. 3개 연대가 모이는 교통로에 대룡리가 있었다. 대룡시장의 가장 큰 공터인 극장마당의 좌측에 위치한 궁전다방 터는 8240부대의 대룡리 파견대였고 다방 뒤편으로는 미 군사고문단 소속 제308방첩대<sup>200)</sup>가 있었다. 시장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인 질서를 보장할 통제기관이 당시로서는 최고 권력기관인 8240부대였으므로 그 파견대가 있는 위치는 새로운 시장개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군대가 중심이 된 시장의 발전이 오래갈 수 없었듯이 대룡시장 역시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부터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장체계의 균열을 봉합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이념의 한계를 봉합해 주던 군대이념보다 더 상위의 권력이념의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교동읍성으로 돌아가 보자.

#### 4. 이념

고대 성곽도시에서 권력이념의 최고형태는 신전과 궁전이였다. 동양에서의 신전은 종묘와 사직단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신전과 궁전, 신권과 왕권의 경쟁에서 승리한 쪽이 자기의 권력개념을 이념으로서 정착시킨 것이 성의 형태이다. 교동읍성은 지방차원의 성곽이지만 중앙집권적 관료제 하의 지방성곽이기에 중앙차원의 이념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는지를 보는 것은 읍성이념을 파악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왕권이 중심이 되고 종교를 하위이념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균열을 왕이 봉합해야 하는 책임이 부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의 봉합력에도 한계가 있음이 유교이념으로 무장한 성읍도시에서도 드러난다. 왕성을 남한산성과 기각지세로 지키는 강화읍성을 다시 기각지세로 지키는 것이 김포의 문수상선과 교동읍성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수산성은 문수사가, 교동읍성에는 부군당이 자리한 것이다. 문수사는 원래 있던 절인데도 성안에 포함시켰고, 부군당은 들어올 틈이 적었는데도 비집고 들

199) 유격군 타이거여단 여단장 박상준, 「제8240유격군타이거여단 U.N 편성표」, 『여단 전적 통계·계획 및 상황도표』, 전쟁기념관 기록문서

200) 해방 후 남한에서는 미제24군단 산하 제224방첩대와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 산하 441방첩대의 통제를 받은 971방첩대가 활동했고 미군철수 후에는 군사 고문단 소속 제308방첩대가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1950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쿄의 441방첩대가 한국의 모든 방첩활동을 주도했으나 12월부터 442방첩대가 통제했다.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파견대(FEC/LD/K)’로 8240부대가 1951년 7월 26일에 창설되었다. 이때 442방첩대 인원과 기능이 8240부대로 이관되었다. (『독립부대명단 8240』, 『독립부대8240편성표』, 『8240부대표기지사령부 편성표』, 『8240타이거여단명단』, 국가기록원; 이창건, 「KLO 참전동지회 최규봉회장 회고담」, 『KLO 한국전 비사』, (지성사, 2005), pp.525-529;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Vol.1,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p.182)

어 온 것이다.

교동읍성의 부군당(府君堂)은 한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군과 그의 부인 신씨(愼氏)를 신격으로 모시고 있다. 인천 도서지역 가운데 부군당이 등장한 것은 교동읍성이 유일하다. 교동읍성의 부군당은 서울 한강변 부군당의 영향으로 해로를 통해 전파되었을 확률이 높다. 교동읍성이 위치한 남산포는 조선 후기 해로의 중요한 통로이자 군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인데, 다만, 그 전파 시기는 18세기 이후로 여겨진다.

교동읍성 부군당은 그 위치가 북쪽인 점, 신격으로 실존인물인 부부 내외를 모시고 곳거리에서 ‘부군거리’가 존재하는 점, 남근을 봉안하고 지전(紙錢)을 거는 행위, 당집과 신목(오동나무)의 존재 등은 조선시대 문헌이나 현재 서울 한강변의 부군당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교동읍성 부군당은 여타 지역과 달리 ‘부군당(扶芹堂)’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규모가 현존하는 서울 용산구, 마포구의 부군당과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지방지도 등에 보이는 부군당과 달리 작다는 점에서 교동읍성 부군당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군당굿은 단독으로 거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개산의 산제를 시작으로 도감집 안택고사, 사신당굿, 부군당굿 순으로 3~4일간 진행하였다. 당시 부군당굿은 마을공동체 신앙의 하나로 진행된 셈이며, 산신보다는 그 신격이 낮음을 제의 순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부군당을 ‘큰집’, 사신당을 ‘작은집’이라고 불렀지만, 굿은 사신당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사신당굿은 남산포구에서 거행한다. 곳거리의 내용은 한국을 왕래했던 중국 사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연신굿 12거리를 한다. 따라서 굿의 성격은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고, 선주와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배를 타고 어장으로 나가 용왕밥을 먹이고, 선원들과 배치기도 하면서 즐겼다고 한다. 이처럼 사신당굿은 그 명칭과 유래와 달리 새우잡이 어민들을 위한 굿으로 변하였다.<sup>201)</sup>

우리나라 부군당제는 조선시대 각 관아(官衙)에서 신당(神堂)을 두고 아전(衙前)과 서리(胥吏) 등 하급관리들이 마을주민과 함께 지낸 제사였다. 이는 향촌사회의 견제세력인 향청과 읍사, 품관과 향리 중 후자의 종교적 지향을 보여준다. 재지사족이 향교를 중심으로 왕권의 수직계열에 있는 수령이나 향리를 견제한다면, 향리들은 왕권을 정점으로 한 행정력으로 향청세력을 견제한다. 그런데 왕권이념에 장악되어야 할 읍성 한 구석에서 유교와 무관하고 왕실의 종법제도에도 어긋나는 폐위된 왕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한강변의 상업발달과 함께 이를 관리하던 여러 관청에서 부군당제가 집중적으로 행해졌다.<sup>202)</sup> 1791년(정조 15년) 연암 박지원은 부군당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다.

‘아! 지금 중앙의 모든 관청과 지방의 주현(州縣)에는 이청(吏廳)의 옆에 귀신에게 푸닥거리하는 사당이 없는 곳이 없으니, 이를 모두 부군당(府君堂)이라 부른다. 매년 10월에 서리와 아전들이 재물을 거두어 사당 아래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무당들이 가무와 풍악으로 귀신을 즐겁게 한다.’<sup>203)</sup>

유학자로서 연암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이념을 왕권에 맞추어 변형하고 격하시키는 순간 부군당이 파고들 균열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교이데올로기의 이완은 교동읍성 이전 시 여단도 사직단도 향교도 구읍에 버리고 신도시를 조성할 때 노골적으로 드

201) 정연학, 「강화 교동도 ‘교동읍성’ 내 부군당의 성격과 제의」, 『실천민속학연구』Vol.28, (실천민속학회 2016), pp.219-220

202) 정연학, 「강화 교동도 ‘교동읍성’ 내 부군당의 성격과 제의」, 『실천민속학연구』Vol.28, (실천민속학회 2016), pp.225-226

203) 『燕巖集』卷之一, 煙湘閣選本 安義縣縣司祀郭侯記

러난 것이었다. 부군당은 내재되어 있던 균열을 자기 식으로 봉합하는데 성공한 것뿐이다.

### 새로운 이념

대통령리의 중심이전을 통해 교동읍성이념을 붕괴시킨 유엔8240부대 역시 봉합할 수 없는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전쟁법에 의해 교전자의 자격을 갖기 어려웠던 이주민 반공유격대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유엔사령부’에 배속된 1951년 7월이다. 읍내리에 잔존되던 교동읍성이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저항세력이 국가를 뛰어넘어, 미국이란 우방을 뛰어넘어, 일거에 유엔이란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교동읍성이념이 부군당에 의해 잠식되고 유엔이념에 의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내재된 틈과 균열선 때문이었다. 임란과 호란의 외부 충격하에서 더욱 강력한 봉합력을 발휘했던 권력이념이 한국전쟁의 충격하에서 붕괴된 것은 외부문제가 아닌 내부문제였음을 드러낸다.

현재 교동은 ‘유엔사령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정전협정과 한국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강하구는 읍성의 해자를 대신하고 있고, 철조망은 성벽을 대신하고 있다. 유교이념 대신 자유주의이념이, 존왕주의 대신 민주주의가, 경국대전 대신 대한민국 헌법이, 대명을 대신 유엔헌장이, 조공체제 대신 국제체제가 현재의 교동을 지배하는 권력이념이다. 그러나 이토록 강력한 이념도 결정적 균열선을 가지고 있었다.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 대해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한 적이 없다.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니다.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은 유엔깃발법 위반이다.

“유엔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이름(misnomer)이다.

1994년 6월 유엔법률국이 고시한 내용이다.<sup>204)</sup> 1994년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 2003년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 2013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모두 이를 공식확인하였다.<sup>205)</sup> 한국전쟁의 주체라고 믿고 있던 유엔이, 유엔의 군대라고 생각하던 ‘유엔사’에 대해 내린 판결은 ‘유엔사’이념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균열이었다.

그람시에 의하면 낡은 것이 갠데도 새로운 것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가 위기이다. 낡은 권력이념이 외부의 충격에도 유지되는 것은 봉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충격은 더 강한 봉합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별거숭이 임금을 옹호하는 이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봉합을 선택한다. 새로운 이념이 낡은 이념의 외부에 머물 때 낡은 이념은 새로운 이념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더 강력하게 응전할 수 있다. 위기의 본질은 새로운 이념이 낡은 이념의 외부로서 곁돌기 때문이다. 오직 낡은 이념의 내부로 들어가서 균열을 붕괴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균열의 봉합이다.

교동의 새로운 이념은 교동읍성을 유지하고 붕괴시켜온 이념에 자리한 균열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그 상처를 봉합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결로서 안겨질 수 있다.

204) UN Office of Legal Affairs,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1950) OF JULY 1950’, *UN Juridical Yearbook*, 1994, Chapter VI, p.501 참조

205) S/2013/20 (14 January 2013), p.6